

시게미쓰 하츠코 변수 등장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31일 금요일 제3270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30일>

코스피	2019.03	(-18.59)
코스닥	712.86	(-17.61)
금리(국고채 3년)	1.74	(+0.02)
환율(원·달러)	1169.60	(+9.10)

이재용폰 몇대 팔린 겨?

삼성전자 체질화된 비밀주의… 두루뭉실 실적공시
스마트폰 판매대수·매출 공개하는 애플, LG와 대비
"주주친화한다더니 변한게 없어"… 투자자들 불만

삼성전자가 30일 올 2분기(4~6월) 실적을 공시하면서 세계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성적표가 대부분 드러났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들은 이들의 실적 발표문을 토대로 향후 투자전략을 짜게 된다.

실적 발표 때마다 매번 되풀이 되는 지적이지만 삼성전자의 실적공시는 여전히 부실하고 불친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추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주주친화정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부터 투자자에게 불친절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비난거리는 스마트폰 판매대수 문제다. 삼성전자는 브랜드 별로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전체 판매대수도 공시자료에 적시하지 않는다. 일부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한 '컨퍼런스콜(전화 또는 화상회의)'에서 담당 직원이 구두로 대충 몇대정도 된다고 밝히는 게 전부다.

애플의 경우 분기별 실적표에서 아이폰을 비롯한 주요 제품들의 판매대수와 그 매출액을 상세하게 공개한다. 국내 경쟁자인 LG전자도 애플만큼 친절하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스마트폰 판매 실적을 적시한다.

애플은 분기별 실적 발표문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등 총량 계수는 물론이고 국가 또는 대륙별 매출 실적, 주요 상품별 판매실적도 자세히 내놓는다. 상품별 실적은 아이폰, 아이팟, 매킨토시 컴퓨터, 서비스, 기타 생산품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눠 판매대수와 매출액을 공개한다. 당해 분기의 상품별 판매대수와 매출액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와 직전 분기 판매실적 및 매출액, 그 증감률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추이를 한눈에 파악 가능하게 한다.

아이폰의 경우 2분기에 4753만4000대를 판매해 313억6800만 달러를 벌었으며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판매대수로는 35%, 매출로는 59% 증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LG전자는 애플 처럼 스마트폰 등의 판매실적을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지만 사업부문별 실적과 전망이라는 코너에서 대략적인 수치는 공개한다.

29일 발표한 2분기 실적발표문에서 스마트폰의 총 매출 수량이 1410만대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 전분기 대비로는 9%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매출은 3조 6500억원, 영업이익률은 0.0%라고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분기별 총매출과 영업이익을 ▲ 소비자가전(CE)-TV,냉장고, 세탁기 ▲ 아이티 모바일(IE)-스마트폰, 태블릿, 네트워크 ▲ 디바이스 솔루션(DS)-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개 카테고리로 나눠 공개한다.

스마트폰의 경우 발표문만으로는 정확한 실적을 알 수 없다. 판매대수는 아예 밝히지 않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IM부문으로 뭉뚱그려 공개한 것이 전부다.

30일 발표한 2분기 실적발표문에서 IM부문의 매출은 2조6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 상승, 영업이익은 2조76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02% 상승했다고 밝혔다. 비교 수치로 전년 동기와 전분기 수치를 적시했다.

하지만 IM부문에는 스마트폰 뿐아니라 태블릿 피시와 네트워크 사업 실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만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알 수 없다.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판매대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실적 공시 후 일부 기관투자자 등을 상대로 연 콘퍼런스 콜에서 이명진 전무가 말 한 게 전부다. 그는 "2분기에 휴대폰 8900만대를 판매했으며 이 중 스마트폰 비중은 80% 초반"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이른바 '이재용폰'으로 관심을 모으며 출시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등 개별 브랜드 실적은 아예 추론할 근거조차 내놓지 않는다.

투자자가 삼성 스마트폰 등의 판매추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각종 사설 정보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이들 정보는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결국 혼선만 가중된다.

그나마 정확성을 인정받는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가 지난 23일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출하대수가 7230만대라고 공개했지만 삼성이 30일 밝힌 수치와 맞지 않는다. 반면 IDC가 동시에 공개한 애플의 출하량 4750만대는 실제 애플의 실적 발표 내용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실적 공개에 왜 이처럼 미온적인 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내 간판 기업인 삼성의 이런 배타적 비밀주의는 결국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을 후진국 수준으로 취급받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1면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롯데도 주총 표 대결

신동주(62 **사진**)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생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로써 롯데그룹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의결권은 아버지가 대표자산관리회사(광윤사) 지분 33%를 가지고 있다"면서 "내 의결권은 2%에 못 미치지만 직원 지주회 의결권 32%를 합지면 전체의 3분의 2가 된다. 신동빈의 의결권은 롯데홀딩스나 광윤사 모두 나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전날 신동빈 회장이 우호지분을 과반 확보했다고 주장한 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신 전 회장은 자신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롯데홀딩스 이사진 해임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지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7일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이사 6명을 해임한 것에 대해 "아버지가 직접 지시한 것"이라면서 "가능한 빨리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교체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신동주·동빈 형제간 분쟁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표 대결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양측은 표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오후엔 신동주·동빈 형제의 모친인 시게미츠 하츠코씨(88)가 입국했다.신 씨 일가의 가족회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무대로 펼쳐질 두 형제의 승부는 하츠코 씨의 입국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업계는 하츠코 씨가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지분 관계가 불명확한 롯데홀딩스의 지배자 '광윤사'와 국내 롯데를 지배하는 'L투자회사'에 하츠코 씨가 관여돼 있다면 신동빈 회장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하츠코 씨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주주총회의 무게는 신동주에게 더욱 쏠리게 된다. 또한 하츠코 씨가 국내 롯데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L투자회사'의 지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동주 회장은 29일 귀국한 후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을 재차 확인 중이다. 신동빈 회장은 30일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일본에 남아 롯데홀딩스 이사와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29일 귀국한 뒤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뿐 아니라 한국 롯데그룹 임원들에 대해서도 해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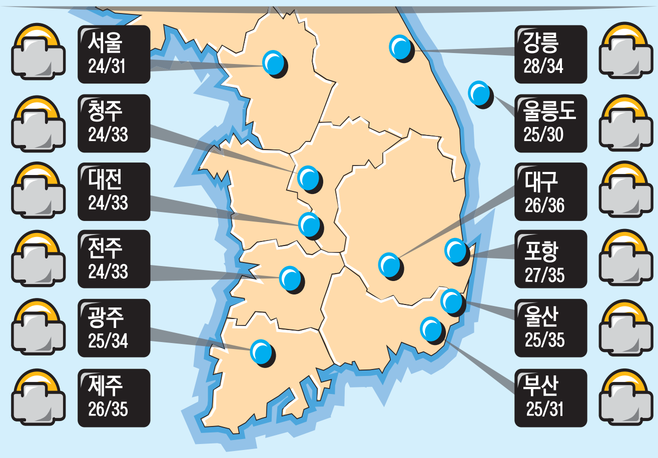
▶관련기사 6, 8, 15면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날씨

7/31 금 일출시각 05:34 일몰시각 19:4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경제·산업

▲ 

삼성물산이 올해 시공능력평가(시평)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선두 탈환을 노렸던 현대건설은 2위에 그쳤다. 이는 실적과는 상관없이 건설사들의 자존심 대결로 통한다.

▲ 롯데그룹 '형제의 난' 소식에 증권시장에선 **롯데 관련주**가 화제다. 특히 지주사 전환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롯데쇼핑과 롯데제과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사 3사**의 대규모 실적 악화 소식에 주가가 줄줄이 약세다. 증권가에서도 이들 목표주가를 내리고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올 상반기 **금융지주**(은행)사들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카드, 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가 실적을 견인하며 최대 계열사인 은행별로는 희비가 교차됐다.

▲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꼽히던 수도권 서부지역에 **신설 철도노선**이 잇달아 확충돼 관심이다. 각종 개발호재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인 만큼,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48조5400억원, 영업이익 6조9000억원의 실적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29% 줄고 영업이익은 4.03%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중간배당을 주당 100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의 중간배당은 주당 500원이었다.

▲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8만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400만원(2015년 말 지급) 등이다.

▲ 롯데가의 경영권 전쟁이 **'신동빈 vs 신 씨 일가'**의 전선으로 형성된 분위기 속에 곧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롯데가 경영권 분쟁의 키는 향후 열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의 두 형제간 **우호지분**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식품업계**가 갈수록 정체되는 시장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였다가 결과적으로 적자 확대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최근 **수면 시장**이 크고 있다. 생활 속 나쁜 자세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면서 숙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치·사회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달 5일 국내 저가항공사인 이스타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당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등의 전세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이 여사 본인이 방북 비용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실무진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구매 의혹을 처음 폭로한 캐나다의 화이트해커 집단 **'시티즌랩'**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 등장했지만 안철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정보 비공개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육군 소속 여군 부사관이 선임 부사관을 성추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지만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은폐·축소 의혹이 일고 있다. 여군 부사관은 사건 직후 병영 고충 상담 전화인 **국방헬프콜**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상담했지만 국방헬프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산업단지 규제개혁 대책과 공장 신·증설 등 산업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분야에 걸쳐서 40여개의 개선대책을 내놨다.

▲ **손혜원** 당 홍보위원장의 문제제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당명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정치'라는 명칭에 지분을 가진 안철수 의원은 "당 혁신이 성공해서 당이 바뀌었다고 국민이 느낀다면 당명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재법 68조1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행정자치부는 오는 31일부터 '민원24' 애플리케이션에서 **'스마트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각종 민원서류 위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서해 죽도 인근의 **상펄어장**을 둘러싼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 다툼이 두 지역이 해역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결론 났다. 헌법재판소가 새 기준을 제시하면서 다툼 발생 5년 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퇴직 지하철 역무원 김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남의 명의로 숨기고 채무를 탕감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폭염에는 물놀이가 최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에서 아이들이 분수를 맞으며 무더위를 날리고 있다. /뉴시스

국제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현행 0~0.2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서도 인상이 멀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9월설과 12월설이 맞서고 있지만 추는 9월설 쪽으로 기울고 있다. 주요 산업이 고전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삼성 합병 건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눈 밖에 난데다 이제는 두달 후면 달러 강세와 자금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 짐바브웨의 **'국민 사자'** 세실을 죽인 미국 치과의사 월터 제임스 파머(55)에 대한 전 세계의 분노가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 사냥꾼을 유혹하는 남아프리카 사냥산업이 미국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 2014년 3월 8일 사라진 **말레이항공** 370편(MH370)의 날개 일부로 보이는 잔해가 추락 추정지점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마다가스카르 인근 섬에서 발견됐다. 국제조사팀의 1년에 걸친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인도양판 버뮤다 삼각지대나 웜홀이 존재한다는 억측까지 나돌던 상황에서 실종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일본 내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경기장 건설 비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도쿄 올림픽의 공식 엠블럼이 벨기에 디자인 업체인 '스튜디오 데비'가 제작한 리에쥬 극장 로고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롯데그룹** 후계다툼을 두고 일본의 언론들은 △롯데의 집안싸움 △장남의 쿠데타 1일 천하 △골육상쟁 등으로 비유하며 연일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실이 반정부 무장세력 **탈레반** 최고 지도자 물라 무하마드 오마르가 2013년 4월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탈레반 지도부의 비밀이 드러나 탈레반 내부 통제에 혼란이 일 전망이어서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평화 협의 정체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원 비밀주의에 시티즌랩도 속수무책

<해킹 의혹 최초 폭로한 캐나다 화이트해커 집단>

'카톡 감청' 기존 의혹 되풀이만

국가정보원의 비밀주의에 화이트해커 집단인 시티즌랩도 속수무책이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비영리단체인 시티즌랩은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비리를 추적해 오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매 사실을 포착해 폭로한 주인공이다.

빌 마크작 시티즌랩 연구원은 30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프로그램 발표회'에서 화상을 통해 "이번에 해킹팀사에 대한 해킹을 통해 밝혀진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보면 해킹팀사 직원 1명이 한국으로 출장 와 국정원 측을 만나 면담을 했다"며 "국정원 측이 RCS(원격제어시스템) 프로그램이 카톡을 감청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 기능을 더했으면 하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카톡 감청 기능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었다고만 말할 뿐 해킹팀사가 새로 만들어 보고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카톡 감청 요청은 일찌감치 제기된 의혹이다.

국정원이 갤럭시노트2 기종을 내부용으로 해킹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5·6월에 국정원이 3개의 안드로이드폰을 성공적으로 해킹했다. 영어와 필리핀어로 설정된 전화였다"며 "이 전화를 실험용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려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킹의혹 첫 폭로 '시티즌랩' 영상통화. /연합뉴스

이어 "해킹팀사는 누가 RCS를 심었는지에 대한 교신내역은 갖고 있지만 두 달만 보관하고 삭제하기 때문에 6월 전 정보는 확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킹팀사 정보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해킹 대상 휴대전화의 IP주소나 모델명, 이동통신사, 국제·국내용 정도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실제 국정원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수행했는지 알 수 없다. 실제 유출된 자료는 극히 적은 양"이라면서 "해킹팀사도 국정원이 취득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RCS 구매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런 프로그램을 구매·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탈리아 해킹팀사가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우려하고 있는 이메일 내용을 보면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해킹팀사 CEO인 데이비드 빈센제티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등 문제국가에게는 프로그램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마크작 연구원은 국정원이 북한을 상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이를 주문했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북한 사용 운영체제(OS)를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정치연합 측은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진상규명이 어렵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특별검사로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이희호 '저가항공기' 타고 평양행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다음달 5일 국내 저가항공사인 이스타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당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의 전세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이 이사장 본인이 방북 비용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실무진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평화센터는 30일 "이사장이 8월 5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을 출발해 8일 오전까지 3박4일 동안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방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저가항공사인 이스타 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방북하기로 했다. 센터 측은 정부에 별도의 비용 지원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북 경로는 서해 직항로다.

이 이사장은 평양에서 평양산원, 애육원, 아동병원, 묘향산을 방문한다. 숙소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11년 조문 당시 썼던 백화원초대소와 묘향산 호텔이다. 이 여사의 방북 기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의 면담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단 규모는 센터 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20여 명 가량 구성될 예정이다. 오늘 중 최종 명단을 확정해 북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송병형 기자



지금 평양은 지난 29일 평양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두 소녀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소녀의 팔에 걸린 명품처럼 보이는 가방이 현재 북한 내 명품가방 유행을 짐작하게 한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당 이름 바뀔까

안철수도 '수용' 시사

손혜원 당 홍보위원장의 용감한 쓴소리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어색한 이름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네이밍 전문가인 손 위원장은 최근 방송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란 당명)은 브랜드 가치 면에서 부정적이다. 사람들이 읽기 불편하다는 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새정치'라는 이름에 지분을 가진 안철수 의원은 30일 "당 혁신이 성공해서 당이 바뀌었다고 국민이 느낀다면 그런 경우에는 당명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수용 의사를 시사했다. 그는 올해 초 당명 개정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반대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당명이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당원들도 여러 차례 당명 변경을 거치면서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의 당명은 기존의 민주당과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정치 세력의 정신이 함께 담겨있는 이름인 만큼 당명개정을 어느 한쪽에서 쉽게 논의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과거 새정치연합이 사용하던 민주당이라는 명칭은 현재 다른 원외정당에서 사용 중이다.

/윤정원 기자 garden@

전문대 수시 84%에 입시박람회 '인산인해'

체험관 위주 부스 구성

30일 2015학년도 전문대 엑스포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홀에서는 학부모를 대동한 많은 학생들이 몰렸다. 올해 처음으로 전문대 입학정보 박람회를 마련한데다 전문대 입시 전체 모집정원 중 84.1%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이번 엑스포는 전국 137개 전문대 중 63개 전문대가 참가해 91개 직업 콘텐츠를 준비했다. 직업체험관 옆에서 진로진업상담관도 설치돼 10여명의 상담관이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했다. 또 전문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리는 전문대학 홍보관도 마련됐다.

각 대학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위주로 부스를 구성했다. 한국승강기대와 거제대는 학생들이 종이를 이용해 모형 엘리베이터와 배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북적거리는 박람회장. /연합뉴스

동양미래대와 경기과학대 등은 자유자재로 춤추는 로봇를 비롯해 각종 움직이는 로봇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대전과학기술대는 정신을 집중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뇌파게임기와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은 차세대 가상현실 슈팅게임과 가상공간에서 직접 롤러코스터를 타는 스릴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을 들고 나왔다.

제주관광대와 강원관광대는 학생들이 카지노게임을 직업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관광대 등 항공서비스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승무원옷을 입고 직접 기내식 서비스 제공하는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실종 미스테리’ MH370기 추정 잔해 발견

인도양서 날개 일부 발견
佛·말레이 당국 조사 착수

2014년 3월 8일 사라진 말레이항공 370편(MH370)의 날개 일부로 보이는 잔해가 발견돼 전세계 언론이 앞다퉈 긴급보도에 나섰다. 국제조사팀의 1년에 걸친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인도양판 버뮤다 삼각지대나 웜홀이 존재한다는 억측까지 나돌던 상황이었다. 실종 미스테리가 드디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 해안에서 MH370로 추정되는 항공기 날개 일부가 발견됐다. 레위니옹 섬은 마다가스카르 인근에 있다.



마다가스카르 인근 레위니옹 섬에서 발견된 비행기 잔해. /CNN방송 캡처

프랑스 항공당국은 이 물체가 MH370의 잔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 본토에 있는 연구소로 옮겨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호주 교통안전국과 미국 보잉사는 사진을 통해 일치 여부를 분석 중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잔해 발견 소식을 듣자마자 확인을 위해 조사팀을 현장에 보냈다.

현재 각국 언론 보도를 통해 MH370 잔해일 가능성을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항공 전문가 자비에 티틀만은 CNN에 "이번 발견된 물체가 실종된 보잉777 기종의 날개 부품 플래퍼론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 베테랑 보잉 엔지니어는 WSJ에 "(잔해의) 오목한 모양이 777기 플랩 디자인에 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까지 "이 물체가 MH370의 잔해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종 여객기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

잔해가 MH370의 일부가 맞다면 실종된 지 509일 만의 발견이다.

MH370는 2014년 3월 8일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을 향해 떠난 뒤 자취를 감췄다. 이륙한 지 40분여 만에 교신이 끊어지고 50분 전후로 레이더망에서도 돌연 사라졌다.

말레이시아 군 당국이 목적지 베이징을 향해 북동쪽으로 가야 할 항공기가 정반대인 서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국제조사팀이 인도양 남부 수역을 대상으로 수색에 나섰지만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결국 조사팀은 올해 3월 MH370이 항로를 어이없이 이탈해 사라진 까닭을 전혀 모르겠다는 취지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내놨다.

이번에 잔해가 발견된 레위니옹 섬은 수색 현장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곳이다. 현재는 해류를 따라 잔해가 이동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해류설을 제시한 호주 교통안전국(ATSB)의 마틴 돌란 국장은 WSJ에 "잔해가 어디로 떠내려갈지에 대해 수많은 모델링을 했다"며 "모델링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번 잔해는) 분명 우리가 한 모델링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도쿄 올림픽 엠블럼 표절 논란

벨기에 극장 로고 판박이

2020 도쿄 올림픽 엠블럼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가뜩이나 경기장 설계 변경을 두고 일본 내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다.

30일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벨기에 디자인 업체인 '스튜디오 데비'의 올리비에 도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도비 대표는 지난 27일 회사 페이스북을 통해 "2011년 디자인한 (벨기에 동부) 리에주 극장의 로고와 도쿄 올림픽의 로고가 흡사하다"며 "극장 로고는 핀터레스트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공식 발표된 도쿄 올림픽의 엠블럼은 도쿄·팀·내일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은 영어 알파벳 T모양을 기본으로 했다. 리에쥬 극장의 로고도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이 도안과 비슷하다. 오른쪽 상단에 일본을 의미하는 붉은 원 하나를 추가하면 바로 도쿄 올림픽 엠블럼이 된다.

도비 대표는 페이스북에 두 작품을 나란히 붙인 사진을 공개하면서 "너무 유사해 놀랐다"고 말했다.

도비 대표는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표절한 것인지, 단순히 영감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 변호사와 대응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송병형 기자



도쿄 올림픽 엠블럼(왼쪽)과 벨기에 리에주 극장의 로고 비교. /스튜디오 데비 홈페이지

스마트폰으로 민원서류 위조 즉시 확인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각종 민원서류 위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민원서류 진위를 확인하려면 민원24에 접속해 증명서 상단의 문서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하거나, 별도의 스캐너·보안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한다. 스마트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용 스캐너나 인터넷 접속 없이도 간편하게 민원서류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1일부터 '민원24' 애플리케이션에서 '스마트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의 모바일 앱을 내려 받아 '진위확인' 메뉴를 실행하고 민원증명서 하단의 3단바코드를 차례로 촬영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이 바코드 내부에 저장된 위변조 방지용 전자관인을 인식하면 화면에 원본 민원증명서 이미지가 나타나고, 이를 민원서류와 비교하면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민원24 포털을 통한 민원서류 진위확인 이용 실적은 월평균 2만4000건, 연간 28만9000건(지난해 기준)에 이를 정도로 많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경찰청 "인터넷 사기 뿌리 뽑겠다"

사기글 방치로 피해 확산 시 '사기방조죄' 처벌

포털 사이트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인터넷 사기글과 계정을 내버려두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피해 예방을 위해 내놓은 조치다. 사기 방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인터넷 사기 4만412건 중 84%인 3만3850건이 직거래 사기였다.

특히 인터넷 사기의 절반이 넘는 2만3018건(57%)이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발생했다.

인터넷 직거래 카페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돈만 챙기고 물건을 넘겨주지 않는 사기를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구조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게시글과 계정을 '우선적 임시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포털사 측에 권고했다.

현재 사기 피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글을 쓴 게시자에게 소명할 시간을 주는데, 이 시간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포털사나 카페 운영진이 해당 사기글과 계정을 방치해 피해가 확산하면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포털사로부터 제공받은 민원이나 경찰이 접수한 피해민원 중 상습적인 직거래 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관서를 지정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다중피해 사기를 뿌리뽑고자 인터넷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는 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상습성이 의심되는 장물사범은 지방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 /김서이 기자

뿔난 시민 2786명 '해킹 의혹' 국정원장 고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민 고발단 모집
내달 12일까지 2차모집… 추가고발 방침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 뿔난 시민들이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에 나섰다. 정당이나 단체 등에서 고발은 있었지만 일반시민들이 단체로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1개 단체는 국민 고발단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현직 국정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민 고발단을 모집, 시민 2786명을 모았다.

고발 대상은 이병호 국정원장과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해킹 프로그램(RCS) 구매 대행 업체인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 등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도 해킹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 국정원장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프로그램 구입과 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 원장을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은 반드시 해명돼야 할 것이며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하게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석운(가운데)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국정원의 불법 해킹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국정원이 비밀정보기관이라고 하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함은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훔쳐봤다는 것이 최근 의혹들의 핵심인 이상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기를 문란케 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내달 12일까지 2차 고발단을 모집한 뒤 추가 고발 접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세계 각국에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이탈리아 업체의 내부 비밀자료를 공개했다. 그 중 '5163부대'(5163 Army Division)'가 국정원의 대외 명칭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감청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새마을금고 강도 알고보니 엘리트

서울대졸·교사 출신
도박·빚 때문에 범죄

서울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가 명문대를 졸업한 교사 출신의 엘리트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당초 피의자는 자신의 최종학력을 은평구 소재 모 고교라고만 진술해 경찰조차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벽과 빚이 엘리트 출신 피의자를 사지로 내몰았다.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강도 피의자 최모(53)씨는 서울대 사범대학 81학번으로, 1988년 2월 졸업 후 2년 2개월 동안 강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 1990년 사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등 말할 기회는 있었지만 차마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최씨는 아들이 진 빚 3000만원을 포함해 본인 생활비 때문에 지인에게서 빌린 총 50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카지노와 경마장을 월 2~3차례 출입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생활고보다는 도박벽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씨는 사업 부도 이후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 셋을 뒀는데 전 부인이 아들 한 명과 살고 있고 최씨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직후 강탈한 24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인에게 송금해 갚았고, 정선 카지노로 직행해 나머지 400만원을 탕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범행 사흘 전 범행 현장 답사를 해 청원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도 바로 경마장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일 낮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장난감 총으로 직원을 위협, 2400만원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범행 6일 만에 강남구 수서동 지인 집에서 체포됐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지난 26일 검거된 서울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 최모 씨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 곳곳에 스민 단재 신채호의 자취 단재 선생과 부인 박자혜 여사. 박 여사 역시 투철한 독립운동가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연합뉴스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소환 20시간 만에 귀가

檢, 구속영장 검토중

박기춘(59·남양주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지 20시간 만에 귀가했다.

30일 오전 6시 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조사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을 다 조사했다"고 답했다.

그는 "금품을 왜 돌려줬느냐", "증거인멸을 지시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10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규모와 성격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정치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진술 내용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수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회삿돈 4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박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 시계 7점, 명품가방 2점, 안마의자 등이 박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달 초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의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돌려주려 한 정황도 있다.

그는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내다 지난해 6월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돼 건설사업 부문 입법 활동을 관장해왔다.

검찰은 김씨가 사업상 편의를 위해 박 의원 동생에게 줬다는 2억5000만원을 전달받았는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씨와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했으나 박 의원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점이나 지위·활동 영역 등에 비춰 정치자금보다는 대가성 금품 거래 쪽에 무게를 두고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현역 의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전에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미란 기자

'미스터리'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가 관건

신동주, 日 언론에 "신격호, 신동빈 해임 의지 강해"
우호 지분 확보 기싸움…신동빈·신동주 주장 엇갈려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가 경영권 분쟁의 키는 향후 열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의 두 형제간 우호지분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신격호(94) 총괄회장이 신동주(61)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친족 5명과 함께 도쿄 롯데홀딩스 본사를 방문해 신동빈(60) 등 이사진 6명을 해임하려 한 이후 신동주·동빈 형제는 롯데홀딩스를 손에 쥘 수 있는 주주총회 의결권 중 우호지분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를 두고 기 싸움을 펼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29일 우호지분을 과반 확보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신동주 전 부회장은 30일 우호지분이 '3분의 2'에 달한다며 맞섰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과반을 확보했으며 우호 지분이 최대 70%까지 갈 수도 있다"며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우호지분을 아무리 많이 확보한다해도 절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이 자신의 지분 20% 외에도 우리사주 지분 12%, 광윤사 지분 27.65%를 대표하는 이사들을 우호 세력으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신동주 부회장은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롯데홀딩스 의결권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대표로 있는 자산관리회사(광윤사)가 지분 33%를 갖고 있고 나는 2%에 못 미치지만 32%의 종업원 지분(우리사주)를 합치면 3분의 2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관되게 신동빈을 추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종업원 지분(우리사주)을 비롯한 나머지 지분 약 70%가 누구 편이냐는 것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신동빈 회장 측은 롯데홀딩스의 광윤사 지분(27.65%)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주장인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나머지 지분 중 절반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30일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일본에 남아 롯데홀딩스 이사와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회장은 29일 귀국한 후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을 재차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 창립 이후 인사에 신격호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던 점, 재벌그룹의 장자 승계가 일반적인 관행인 점 등을 들어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세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00년 현대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정주영 명예 회장의 의중으로 해결됐다. 정몽구 공동회장은 동생 정몽헌 공동회장 측 인사인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을 고려산업개발 회장으로 전보시켰다. 그러나 해외 출장 중이던 정몽헌 회장이 귀국 직후 아버지를 찾아가 이 인사를 뒤집은 바 있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사회 해임 절차를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진을 해임하려 한 행동이 신동주 회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美 금리 인상설에 한국 긴장

9월설 vs 12월설, 물가 2% 유지가 목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미묘한 화법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9월설과 12월설이 맞서고 있지만 추는 9월설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국은 주요 산업이 고전하고 있고 최근 삼성 합병 건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눈 밖에 난데다 이제는 두 달 후면 달러 강세와 자금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연준은 29일(현지시간) 이틀 동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현행 0~0.2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을 보면 "현행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연준은 성명에서 금리 인상이 머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곳곳에 남겼다.

우선 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기를 설명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약간의 추가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전에는 "추가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준은 성명의 앞부분에서는 "견고한 일자리 증가와 실업률 하락으로 노동시장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물가 2% 유지가 목표다. 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금리 인상의 조건이다. 2%가 넘어가면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2%에 못 미치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보통 고용이 증가해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미국은 2009년 10%의 실업률에서 올해 6월 5.3%로 떨어졌지만 물가는 2%를 넘지 않았다. 연준이 "약간의 추가적 개선"을 언급한 것을 보면 실업률이 원하는 수준에 근접했다는 이야기다.

세계 양대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모두 이에 주목해 9월 인상설의 근거로 소개했다.

뉴욕대 스턴스쿨의 킴 쉔홀츠 교수(경제학)는 WSJ에 "고용시장이 개선세를 지속할 경우 연준은 분명 9월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PNC파이낸셜서비스의 스튜어트 호프먼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FT에 "고용시장과 관련해 좀 더 낙관적인 성명이 나와 FOMC가 12월보다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WSJ와 FT가 완전히 9월 인상설로 기울지 못하는 이유는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중국 및 일부 신흥국의 경제둔화가 원자재가격 및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조 상품 가격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나올 미국 경제지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노동부는 31일 2분기 개인소비지출(PCE) 지표를, 다음주에는 7월 고용보고서를 발표한다. 상무부는 다음주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송병형 기자 bhsong@

라이엇게임즈, LoL 플레이어 '취향 저격'

콘텐츠 통한 소통 돋보여



라이엇게임즈가 리그 오브 레전드의 빌지워터 PC방 토너먼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은 라이엇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가 이끌고 있다.

LoL은 매주 '게임트릭스'에서 발표하는 온라인 게임 점유율 기준으로 157주째 1위를 차지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최근에도 40%가 넘는 높은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지 만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유저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흥미로운 콘텐츠

LoL의 인기 비결로는 플레이어의 취향에 맞춰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빼놓을 수 없다. LoL 개발사인 라이엇 게임즈는 플레이어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게임에 재미를 더해주는 각종 음원, 영상, 웹툰 등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공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콘텐츠는 바로 신규 챔피언(게임 내 캐릭터) 출시와 함께 공개되는 '입롤의 신' 영상이다. 지난해 8월 챔피언 '나르' 발표와 함께 처음 공개된 이 영상은 LoL 프로 리그 해설과 게임단 코치들이 출연해 재미있는 입담을 통해 신규 챔피언에 대한 정보와 활용 팁을 소개한다.

또 해당 영상과 함께 입롤의 신 마이크로사이트를 통해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신규 챔피언과 스킨(게임 내 아이템)세트를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단순한 구도를 탈피했다.

◆오프라인 이벤트로 소통 확대

라이엇 게임즈는 수익을 거두는데 급급하기 보단 받은 만큼 플레이어에게 되돌려주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14일에는 연인 없는 솔로들이 자장면을 먹는 날로 알려진 블랙데이를 맞아 전국 각지의 PC방을 찾아 플레이어들에게 게임 1시간 무료 이용권, 자장면, 게임 아이템 등의 선물을 증정했다.

또 라이엇 게임즈 직원들이 게임에 접속해 플레이어들과 게임을 펼치는 'RIOT 솔로 특공대와 함께하는 솔로대첩' 이벤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경품을 증정해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최근 선보인 게임 내 대규모 업데이트에서도 라이엇 게임즈는 플레이어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게임 속 세계관과 새로운 스토리를 선보이는 '빌지워터 : 불타는 파도' 업데이트를 통해 각종 영상과 웹소설, 리메이크된 게임 맵과 챔피언 등 다양한 콘텐츠가 공개된 것은 물론 'LoL PC방 토너먼트' 경기를 업데이트와 함께 새롭게 공개된 게임 맵인 '도살자의 다리'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

도살자의 다리는 기존 게임 진행 방식과 달라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와 이를 관람하는 팬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엇 게임즈의 콘텐츠를 통한 소통의 노력에는 '플레이어 중심(Player-focused)'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이 그 중심에 있다. 플레이어들의 취향에 맞춘 콘텐츠와 이벤트로 소통하고, 게임을 넘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흥미로운 경험을 누리게 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권정현 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 커뮤니케이션 본부 상무는 "플레이어들의 즐거움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LoL을 향한 뜨거운 성원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게임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통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평창 금당계곡 에서...

여름휴가 무료로 사용하세요!











에덴피아 멤버쉽 안내

- 입회기간 : 5년
- 회원구성 : 정회원(가족카드발급) 5인-10인
  (법인 또는 무기명 가입 가능)
- 가　　격 : 99만원(부가세포함)
- 특　　전 : 무료 숙박권 20매 증정
- 종　　류 : 스위트, 골드, VIP
- 홈페이지 : http://yjresort.com

시행사 : (주)에덴피아 / 시공사 : 효자건설(도급순위 100위권내)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6-11광림빌딩 2층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590 (033-334-7654)
서울지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6-11 광림빌딩 2F
자금관리 박찬희 법무사 하나은행 654-106347-00107

문의전화 02-541-0344

형제의 난에 롯데그룹주 '광폭' 널뛰기

핵심주 롯데쇼핑·롯데제과만 이틀 연속 상승
계열분리·지주사 설립 등 說… "섣부른 판단 금물"



신동빈 회장 / 신격호 총괄회장 / 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 소식에 증권시장에선 롯데 관련주가 화제다. 특히 지주사 전환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롯데쇼핑과 롯데제과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롯데 계열사들이 매우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얽혀있는 만큼 셈법도 다양해 어떤 종목이 진짜 수혜주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쇼핑은 전 거래일 대비 5.74%(4000원) 오른 25만8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롯데제과는 0.51%(1만원) 상승한 199만9000원으로 역시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전날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는 각각 6.55%, 4.65% 올랐다.

반면 다른 롯데 계열사들은 지난 28일 깜짝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롯데칠성은 0.44% 내렸고 롯데푸드와 롯데손해보험도 각각 4.36%, 1.44% 떨어졌다. 다만 롯데관광개발은 여행 성수기 호조에 3.23% 상승했다.

◆ '대결구도' 아버지·장남 vs 차남

롯데그룹주는 최근 롯데 오너일가 내 경영권 다툼이 심화되면서 들썩이기 시작했다.

지난 27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대동하고 일본을 방문, 차남인 신동빈 롯데 회장을 '지목 해임'했다. 이에 28일 신 회장은 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일선 퇴진시키며 반격에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은 30일 "곧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교체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신 회장에 정면승부를 예고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대 신 회장으로 대결구도가 명확해지면서 계열사 소유지분과 주총 우호세력 확보가 2차전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이 내년 주총에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힌 만큼 롯데홀딩스의 우리사주가 '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 떠올랐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의결권은 대표인 아버지가 광윤사가 33% 가지고 있고, 32% 이상의 직원 지주회를 합치면 3분의 2가 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보유한 19.1%(추정)와 우리사주 12%, 일본 롯데 계열사 및 친인척이 포함된 기타주주 22%를 다해 총 53% 이상의 우호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며 반박했다.

◆ 아버지·누나 지분 어디로?

그룹 내 핵심 계열사 지분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손소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그룹은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 속에서도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그룹 내 결속력이 높은 편이었으나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이 모호하고 형제간 지분율이 비슷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총괄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장남과 차남 중 누구의 어깨에 힘을 실어 줄지도 관심사다.

현재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오너일가→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그룹 계열사(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로 이뤄져 있다.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에 있다. 증시 주변에서는 롯데쇼핑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으나 그룹 모태회사 격인 롯데제과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쇼핑은 신 회장(13.46%)과 신 전 부회장(13.45%)의 지분 차이가 거의 없다. 롯데제과는 신 회장이 5.34%, 신 전 부회장이 3.92%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차남인 신 회장 체제가 굳혀질 것으로 점치면서도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지분을 각각 0.93%, 6.83% 소유 중이고 신 이사장은 롯데쇼핑 지분 0.74%, 롯데제과 지분 2.52%를 가지고 있다. 이들 모두 신 전 부회장 편에 선다면 신 회장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앞서 삼성에스디에스와 현대모비스 등 지배구조 이슈에 따라 큰 폭으로 오른 주가가 올 들어 절반 이상 빠진 것에 비춰보면 롯데그룹 지배구조 관련주도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유진투자證, 일본주식 거래서비스 개시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일본 주식 거래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진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유진투자증권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 '챔피언'과 전국 지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투자자가 직접 일본 주식을 골라 투자하는만큼 다양하고 깊이있는 투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09년부터 긴밀한 업무 제휴 관계를 맺어온 일본 아이자와증권과의 협업을 통해 일본 현지의 증시 전망 및 기업 분석자료를 국문으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에 앞서 지점 영업직원들을 일본주식 투자 전문가로 육성하고자 일본 방문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김영선 해외사업본부장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의지로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데다 향후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에서도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이 서비스를 오픈했다"며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 제공하기 위해 다른 국가 주식 거래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 문의는 유진투자증권 전국 지점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6300)를 통해 가능하다. /김보배 기자

조선株 대규모 '실적 악화'에 "매도해라"

하반기 실적기대 어려워… 목표주가도 줄줄이 하락



대우조선해양 해양플랜트 전문 건조구역.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사 3사의 대규모 실적 악화 소식에 주가가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이들 목표주가를 내리거나 '매도'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전날보다 2.65%(450원) 내린 7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중공업은 4.58%(650원) 하락한 1만3550원, 현대중공업은 0.8%(800원) 떨어진 9만9000원을 기록했다. 현대미포조선은 보합 마감했다.

이들 조선 3사는 해양플랜트 등에서 부진하며 2분기 4조80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영업손실은 3조318억원에 달했고,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도 각각 1조5481억원과 1710억원의 적자를 냈다.

증권사들은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조선주에 대한 목표주가를 줄줄이 내려 잡았다.

이날 최광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조선4사는 2분기 합산 5조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며 "조선사들의 대형 어닝쇼크가 지난해 1분기 삼성중공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2분기 현대중공업, 올해 2분기 대우조선해양까지 빅배스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목표주가 9000원, 투자의견 '매도'를 내는 한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목표주가 7000원, 투자의견 '유지'를 제시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조선주에 대해 "기존 적자 프로젝트에서 추가 손실이 발생했고 생산 공정 지연에 따른 원가율 상승이 어닝쇼크의 요인"이라며 2분기 실적을 반영해 조선 3사의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50~70% 하향한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조선 3사는 2분기 대규모 원가 조정으로 하반기 흑자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해양·조선의 급격한 수주 비중 변화, 인력 생산성 저하 등의 구조적 문제로 불확실성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나마 현대중공업이 해양부문 매출 비중이 적고 적자 플랜트의 인도 시점이 이른 편이라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목표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보유(Hold)'를 유지했다.

강동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은 향후 회계법인 정밀심사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목표주가는 기존 1만6000원에서 6200원으로 낮춰 잡고 투자의견은 '매도'로 제시했다. /김보배 기자

금융권, 상반기 '방긋'… 非은행 덕 봤다

비이자이익·카드·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 실적 견인

신한, 6년연속 1조원 돌파 KB, 9446억 1위 수성 못해

올 상반기 금융지주(은행)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다만 비이자이익과 카드,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가 실적을 견인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최대 계열사인 은행별로 희비가 교차됐다.

◆ 은행 둘러싼 매크로 환경 발목잡아…비은행 부문 '고공행진'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 하나, KB, 농협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상반기 실적발표를 마무리했다.

지주사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곳은 신한금융지주다. 신한금융은 올 2분기 6921억원, 상반기 누적 순익은 1조2841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지난 2010년부터 6년 연속으로 상반기 실적 1조원을 돌파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카드와 금융투자, 생명보험, 캐피탈 등 주요 비은행 그룹사들의 이익 회복이 상반기에도 지속됐다"고 자평했다.

실제 상반기 중 신한금융의 비은행 부문 당기순이익은 59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9% 늘었다.

특히 자회사인 신한카드의 경우 상반기와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전분기 대비로는 27.7% 증가하며 비은행 그룹사들의 이익 회복을 견인했다.

◆ 신한·KB·기업·하나·우리·농협·외환은행 순으로 순익 높아

희망퇴직 여파로 지난 분기 1위에서 한단계 내려온 KB금융그룹은 올 2분기 3396억원의 당기순익을 보였다. 이는 전분기 보다 43.9% 감소한 것이다.

올 상반기 당기순익은 94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7515억원) 보다 25.7% 증가했다.

최대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73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2분기는 지난 1분기 보다 46.7%(2222억원) 감소한 2540억원으로 나왔다.

하나금융그룹은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7488억 2800만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1억원(0.7%) 증가한 5606억원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외환은행의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231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82억원(27.6%)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하나대투증권은 주식시장 호조와 금리 하락에 따른 수수료 수익과 매매 평가이익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03억원 증가한 795억원을 시현했다.

◆ 희망퇴직-일회성 이익 고려해야

NH농협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43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일회성 요인인 우투증권 패키지 인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3655억원)을 감안하면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7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력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008억원(명칭사용료 부담 후)으로 전년동기 대비 150%, 전분기 대비 134.2%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5168억 5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7%(996억원)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는 작년 상반기 민영화 방안으로 매각된 증권계열 자회사와 지방은행 분할 관련 손익은 제외됐다.

IBK기업은행은 올 상반기 IBK캐피탈과 IBK투자증권 등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676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195억원) 보다 574억원(9.3%) 증가한 실적이다.

개별기준으로 기업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5778억원) 대비 239억원(4.1%) 증가한 601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 중심의 효율적 채널구축, 새로운 수익기회 창출을 통해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기업銀, 은행과 함께 성장한 'IBK평생고객' 선정 IBK기업은행은 30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제1회 IBK평생고객'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IBK와 20년 이상 거래하며 함께 성장해 온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업은행은 영업점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김두호, 진장원, 한만우 고객에게 감사패와 순금메달, 여행 상품권을 전달했다. /기업은행 제공

신한카드, 조건없는 0.7% 캐시백 카드 선봬

신한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0.7%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Simple+' 카드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실속 있고 간편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겨냥해 단순하지만 강화된 캐시백과 잔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결제한 금액의 0.7%를 조건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건에 대해 0.7%의 추가 캐시백 혜택(총 1.4%)을 제공한다.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할인해주는 'Coin-Save(잔돈할인)' 혜택도 있다.

잔돈할인은 음식점과 편의점, 할인점, 슈퍼마켓, 병원, 약국, 주요 커피 & 베이커리 등에서 2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결제 시 월 10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코인세이브가 적용된 결제금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전월 카드 사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YES24와 인터파크를 통해 영화 예매 시 최대 3000원을 할인해 준다.

연회비는 S& 1만원, VISA와 MASTER는 1만 3000원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코인세이브 등의 특화 서비스로 생활밀착형 카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외환은행, 中 교통은행서 100만 위안 차입 성공

위안화 자금수요 대비 가능 중국 투자 효율성 오를 것

외환은행은 지난 29일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교통은행 자유무역지구(FTZ)지점으로부터 100만 위안 자금 차입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최대 6억 2000만 위안(U$기준 1억달러) 규모의 자금거래도 계획 중이다.

차입 조건은 1주일 2.60%로 이는 HIBOR(홍콩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금리) 대비 0.3215% 낮은 수준이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해 11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 내 은행간 채권 시장(CIBM/China Interbank Bond Market) 투자 승인을 획득했으며 올 7월 중국 국유 기관 채권 거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위안화 채권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외환은행은 이번 차입으로 위안화 자금 조달 다변화는 물론, 채권 투자를 비롯한 각종 위안화 자금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중국 수출입 기업의 위안화 자금운용을 위한 중국 본토 내 차입과 채권시장(CIBM) 투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위안화 예치금을 이용한 중국 내 우량 금융기관 채권 투자를 본격화 할 예정"이라며 "연내 최대 10억 위안 규모의 투자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금융 당국은 현재 해외 금융기관의 본토 위안화 자금 운용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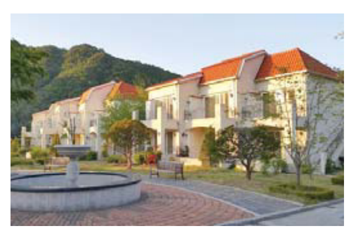
강장훈 외환은행 자금본부장은 "그 동안 국내 시중 은행들은 중국 금융 당국의 규제로 인해 수출입 기업에 대한 위안화 금융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외환은행은 기업 입장에서 위안화 무역 결제에 나설 수 있도록 향후 글로벌 위안화 서비스 플랫폼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평창 '에덴피아 리조트' 회원 모집 시작

강원도 평창 금당계곡 옆에 위치한 '에덴피아 리조트'(사진)에서 회원권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메르스 등으로 미처 휴가지를 예약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한 조치다.

에덴피아 리조트는 지중해 스타일의 건축양식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져 여름철 휴가지로 손색이 없다.

주변에는 금당계곡, 대관령 양떼목장, 오대산 등의 멋진 자연 경관과 더불어 봉평 허브나라, 정선 레일바이크 등 볼거리가 준비돼 있으며 다양한 레저활동도 할 수 있다.



에덴피아 리조트 멤버십 회원권은 99만원이고 가입기간은 5년이다. 회원권은 무료숙박권 20매(1박 가격대 30만원), 가족·법인·무기명 카드 발급·체인 리조트 회원 대우 등의 혜택을 담고 있다. 더불어 회원권 발급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사은품과 워터파크 이용권이 제공된다.

에덴피아 리조트 관계자는 "무료숙박권을 사용한 후에는 저렴한 회원가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며 "아직 휴가지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에덴피아 리조트(02-543-1177)에 하면 된다.

/김보배 기자 bobae@

삼성물산, 2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

2015 시공능력평가

올해 시평액 16조7267억원
현대건설과 3조9545억원 差
부영주택 12위 '4단계' 올라

삼성물산이 2015년 시공능력평가(시평)에서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선두를 굳혔다. 반면 선두 탈환을 노렸던 현대건설은 2위에 그쳤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7월 말 발표하는 시평은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금액으로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10위권 내 건설사의 경우 직접적인 실적에 연결되지 않지만 순위가 정해지는 만큼 '자존심' 대결로 인식된다.

◆ 삼성물산 악재 딛고 1위 수성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시평액은 16조7267억원을 기록하며 1위자리를 지켰다. 2위 현대건설 시평액과의 차이는 3조9545억원. 이는 지난해(5542억원)보다 격차를 7배 이상 벌린 수치다.

삼성물산은 주요 분야에서도 현대건설을 앞질렀다. 토목분야의 경우 지난해보다 81.7% 증가한 4조8486억원의 실적을 올리며 현대건설(2조8580억원)을 제쳤다. 건축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이 5조5012억원을 달성하며 1위를 기록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3조7114억원을 기록해 3위에 그쳤다.

토목과 건축을 합친 토건분야에서 삼성물산은 현대건설보다 기성액이 3조7804억원 더 많았다. 이 격차는 토건분야 5위인 롯데건설 기성액(3조8193억원)에 맞먹는 수치다. 다만 현대건설은 산업·환경설비 분야에서 4위(3조9473억원)을 차지한 반면 삼성물산은 10위권 내에 들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토건분야에 비중이 높게 책정되면서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가 많았던 삼성물산이 1위를 고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대우건설 3위·현대산업개발 톱10 진입

대우건설은 올해 시평액 9조6706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타 대형건설사가 그룹물건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것과 대조된다. 이어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이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현대엠코와 합병을 통해 44계단 뛴 10위를 기록했던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도 한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했다.

현대산업개발은 10위를 기록하며 2013년 9위 이후 3년 만에 톱10에 재진입했다. 반면 지난해 4위를 기록한 대림산업은 두 계단 하락했고, 지난해 9위에 올랐던 한화건설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 중견 건설사 약진

올해 주택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중견 건설사의 약진도 돋보였다.

중견건설사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곳은 부영주택으로 지난해 16위에서 올해는 12위로 4계단 올랐다. 부영은 지난 2011년 75위에서 2013년 31위로, 2014년 16위까지 약진한데 이어 또다시 끌어올렸다. 부영의 토건사업 분야 시평액은 2조929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이상 늘었다.

이어 중견사 중에서는 호반건설이 지난해와 같은 15위를 차지했고, 한라가 한계단 상승한 16위, 금호산업이 세계단 상승한 17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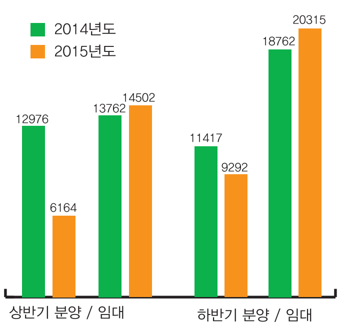
중견사 관계자는 "중견업제의 경우 올해 주택사업 호조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대형사에 비해 계열사 발주 물량을 기대하기 힘들고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하반기 LH 입주물량 2만9607가구

상반기보다 43% 늘어

전년대비 시기별 입주물량 비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 고양삼송 A18블록 국민임대 1890가구를 시작으로 31곳 총 2만9607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상반기(2만666가구)보다 43%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를 포함한 올해 총 입주가구는 전국 총 입주가구의 21%인 5만273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1만5808가구, 지방이 1만3799가구다.

수도권에서는 하남미사지구(5190가구), 고양삼송(1890가구), 화성동탄2신도시(2147가구), 수원세류(2682가구) 등 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규모별로는 60㎡ 이하 1만9287가구, 60~85㎡ 1만158가구, 85㎡ 초과 162가구로 실수요자에게 인기 높은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전체 입주물량의 99%를 차지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하남미사 A5블록 등 공공분양 9292가구, 행복주택 40가구, 국민임대 1만149가구, 영구임대 2012가구, 분납임대 2770가구, 5·10년 공공임대 5344가구 등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총 5만273가구의 LH 아파트에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마련과 전·월세가격 상승억제 등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반도건설, 7월에만 정비사업 3곳 수주

청주·광주·창원 시공권 확보



창원 내동연합 재건축사업장 조감도. /반도건설 제공

반도건설이 이달에만 재건축·재개발사업장 3곳에서 시공권을 확보했다. 반도건설은 7월 한 달간 청주 사직3구역, 광주 월산1구역, 창원 내동연합 등 3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의 총 공사금액만 7059억원에 달한다.

반도건설은 그동안 수도권과 충청·영남권에서 주택사업을 해왔지만 이번 광주 월산1구역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호남지역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광주1구역 재개발사업은 광주 남구 월산동 363-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5층, 12개동의 아파트 905가구를 신축하는 공사다. 2017년 3월 착공 예정이다.

/박선옥 기자

거미줄 철도망 시동… 수도권 서부 '들썩'

복선전철·도시철도 착공
신설역 인근서 분양 봇물



부천 소사~안산 원시간 복선전철 석수골역(가칭)이 단지 내로 연결되는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힐스테이트' 조감도.

대중교통의 소외 지역으로 꼽히던 수도권 서부지역에 신설 철도노선이 잇달아 확충돼 눈길을 끈다. 각종 개발호재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인 만큼, 교통망 확충에 따른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포·부천·시흥·안산 등 수도권 서부지역에 철도가 뚫린다.

김포도시철도가 지난해 3월 기공식을 갖고 착공돼 공사가 진행 중이고, 부천 소사~안산 원시 복선전철도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안산 중앙역과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1단계 구간은 올 8월 사업 방식이 결정된다.

이들 지역은 대중교통이 부족해 서울을 비롯한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던 곳들이다. 이에 아파트 가격도 서울보다 1억원 이상 낮게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대중교통망 확충이 예정되면서 매매가가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경기와 서울의 아파트값은 각각 4.0%와 2.9% 상승했다. 반면 수도권 서부권의 대표 격인 광명은 8.62% 올랐고, 안산(6.92%), 김포(6.39%), 군포(5.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건설사들도 신설역 인근 지역에서 속속 분양에 나서고 있다.

2018년 준공 예정인 부천 소사~안산 원시간 복선전철이 들어서는 안산 선부동에서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8월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석수골역(가칭)이 단지 내로 연결된다.

안산~시흥~부천을 가로지르는 이 노선이 개통되면 안산 원시에서 부천 소사까지 약 24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시흥 산업단지와의 접근성도 개선된다.

우미건설도 이 노선의 대야역(가칭) 인근인 시흥시 은행동 C-1블록에서 '시흥은계 우미린'을 10월 선보인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2지구 24블록 1로트에서 '김포 풍무2차 푸르지오'를 공급한다. 지난해 착공한 김포도시철도 풍무역(가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풍무역에서 5·9호선과 인천공항철도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까지는 두 정거장 거리다.

안산에서 KTX광명역과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 라인에도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 대우건설은 안산 고잔동에서 중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를, GS건설은 광명역을 이용할 수 있는 '광명역 파크자이2차'를 하반기에 내놓는다. /박선옥 기자 pso9820@

서울, 영구임대 1950가구 예비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 1950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강북·강서·노원 등 8개구에서 30개 단지, 총 1950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23~41㎡로 이뤄졌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 148만~357만원에 월 임대료 3만5900~7만1160원이다.

이번 모집 공고부터는 신청 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문의:SH공사콜센터 1600-3456, LH 콜센터 1600-1004 /박선옥 기자

삼성 2분기 영업익, 반도체 덕에 체면치레

스마트폰·가전 고전에도 영업익 6조9000억원 올려

미·중반도체업체 공습 예고 글로벌 경쟁력 대응책 숙제

삼성전자의 '버팀목'은 반도체다. 올해 2분기에도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애플과 샤오미 등 중국업체 사이에서 끼면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TV 등 가전 부문도 고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인텔에 이은 세계 2위의 반도체 기업이다.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떠받치는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정부도 나서 반도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반도체까지 흔들릴 경우 삼성전자의 미래는 가시밭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30일 매출 48조5400억원, 영업이익 6조9000억원의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조2900억원, 3조4000억원이었다.

지난 2분기 반도체 사업이 삼성전자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23%였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49%나 됐다. 현재 삼성전자 포트폴리오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반도체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메모리반도체의 경쟁 우위를 유지했고, 시스템LSI 사업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3분기에는 3세대 V낸드플래시 메모리 양산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도 반도체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점찍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는 중앙처리장치(CPU) 등 시스템 반도체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는 인텔에 미치지 못한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가 시스템 반도체, 나머지 20%가 메모리 반도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과 삼성전자의 매출은 각각 523억3100만 달러, 347억4200만 달러였다.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로 영역을 넓힐 경우 삼성전자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인텔은 마이크론과 함께 낸드플래시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르고, D램보다 10배 이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인 '3D크로스포인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인텔과 마이크론은 내년부터 이 메모리 칩을 양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3D크로스포인트와 유사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양산은 2018년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는 인텔과 마이크론의 합작품이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장기적 파장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텔이 3D크로스포인트를 양산해도 시장 확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기존의 메모리 시장의 파이를 빠르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움직임도 삼성전자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의 역점 사업에 반도체를 포함시켰다.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1조 위안(약 180조원)을 투자하는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갤S6 덕 못 본 삼성SDI, 2분기 영업익 적자전환

당기순손실 3100억원 소형전지 수익성 악화

삼성SDI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6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예상치에 못 미쳤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삼성SDI는 올 2분기 매출 1조8439억원, 영업손실 37억원, 당기순손실 3100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30일 공시했다.

올 1분기 대비 매출은 1.18% 줄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8억원, 646억원에서 적자전환한 규모다. 상반기 삼성SDI 실적은 매출 3조7098억원, 영업이익 31억원, 당기순손실 2453억원을 기록했다.

사측은 소재부문(구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전년 동기 직접 비교가 불가해 올해 1분기와 2분기 실적만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의 리튬이온 배터리

삼성SDI에 따르면 소형 전지는 주요 고객의 스마트폰 판매 부진과 경쟁 심화에 따른 판가 하락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수익성이 악화됐다.

중대형 전지는 유럽·미국계 주요 순수전기자동차(EV) 모델 판매 확대와 중국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개시로 매출이 성장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가정용·UPS(비상전원공급장치) 중심 확판으로 매출이 늘었다.

전자재료 반도체 소재 호조로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

반도체 소재는 공정 소재 매출 증가로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이뤘다. 디스플레이 소재는 전방산업 약세와 철수 아이템 등으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

사측은 하반기 소형 전지 주요 고객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된 가운데 판매 확대와 생산 효율 개선으로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형 전지는 울산 신규와 중국 라인 연내 가동으로 매출 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낙관했다.

전자재료는 전방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소재는 공정 미세화와 고객사 신규 라인 가동 효과로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스플레이 소재는 고객 다변화와 신규 모델 진입으로 매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삼성전자 모델이 윈도우10 출시를 기념해 'PC 보상 판매'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구형 PC 다오, 윈도우10 PC 줄게"

삼성전자, 보상판매 행사 최대 20만원 상당 혜택

삼성전자가 윈도우 10을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하고 보상판매를 실시한다.

삼성전자는 "노트북 9 2015 에디션과 노트북 9 라이트, 노트북 5 등 윈도우10이 탑재된 다양한 라인업의 신모델을 동시에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동안 윈도우10이 탑재된 새로운 삼성 PC를 구매하고 구형 PC를 반납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모델에 따라 최대 20만원 상당의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

보상 혜택은 삼성전자 포인트, 캐시백 등으로 제공되며 기존 구매 혜택에 추가로 적용이 가능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 반납하는 구형 PC는 브랜드와 제조일자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이 가능하며 노트북 뿐만 아니라 데스크탑과 태블릿까지 포함된다.

소비자는 신규로 구매한 PC를 배송·설치 받는 시점에 구형 PC를 반납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고객에게서 반납된 구형 PC의 저장장치를 안전하게 폐기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NHN엔터, 모바일 결제시장 뛰어든다

내달 1일 '페이코' 출시 온·오프라인 동시 사용

온·오프라인 20만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페이코'가 정식 출시됐다.

NHN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사장 정우진)는 30일 소공동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의 8월 1일 정식 출시를 선언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는 아이디와 6자리의 비밀번호 입력의 스마트폰 간편 터치만으로도 온·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페이코'는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온라인 쇼핑몰 전용이었다면 대형마트, 카페, 베이커리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터치 한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용카드 외에도 체크카드, 휴대폰결제, 바로이체, 무통장 입금, 쿠폰 등 국내 최다 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30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모델들이 NHN엔터테인먼트의 간편결제 서비스 'PAYCO(페이코)'를 선보이고 있다.

NHN엔터는 9월부터 오프라인 결제가 시행되며 티머니 가맹점외에도 자체 페이코 동굴(결제단말기)를 제작 2017년까지 30만대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6년 800만 결제 회원, 2017년 1000만 결제회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욱 페이코사업 본부장은 "8월 대규모 마케팅으로 이용자 확보와 가맹점 확대에 주력해 올 연말까지 500만 결제회원을 확보할 생각"이라며 "타겟, 크로스 마케팅을 전개해 NHN엔터만의 특징을 살려 '페이코'를 시장에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 지방대학 인재 고용활성화 앞장

'사회맞춤형학과' 확대

LG가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을 확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방인재 고용 활성화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LG는 2012년부터 졸업후 100% 취업이 보장되는 대학내 '사회맞춤형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과 협약을 맺어 현장에 필요한 인재 육성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학생들의 입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KAIST와 숭실대 등에서 운영 중이다.

LG는 현재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회맞춤형학과 전공을 전기·전자와 기계·자동차부품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LG는 충북도와 함께 운영하는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신형 스파크, 수리비·보험료 최고등급

<경차부문>

전방충돌 경고 등 안전 강화 보험료 산정 RCAR 테스트 19등급 획득… 총 15% 할인

한국지엠은 쉐보레의 경차 신모델 '더 넥스트 스파크'가 한국보험개발원이 실시한 RCAR(세계자동차 수리기술연구위원회) 테스트에서 높은 안전성으로 동급 최저 자동차 보험료를 내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신형 스파크는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신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RCAR 테스트에서 19등급에 선정돼 동급 최저 수리비를 내게 됐다.

RCAR 테스트는 15㎞ 저속 충돌 테스트 후 수리비를 산정해 등급을 결정한다. 파손 정도, 수리 시간, 부품 가격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 수리비를 산출한다.

등급은 최저 1등급부터 최고 26등급으로 나뉜다.

16등급을 기준으로 1개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자차 보험료가 5%씩 할인된다.

19등급에 선정된 신형 스파크는 자차 보험료를 총 15% 할인받게 됐다.

차체의 71.7%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위에 고장력·초고장력 강판을 적용한 신형 스파크는 차체 중량의 최대 4.2배 하중까지 견딜 수 있도록 루프 강성을 대폭 강화했다.

또 운전석, 동반석 에어백과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을 전 트림 기본사양(밴 모델 제외)으로 적용해 어떠한 충돌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승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동급 최초로 적용된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사각 지대 경고 시스템 등 예방 안전 사양을 채택한 스파크는 졸음운전이나 돌발 상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가 감지해 경고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방지한다.

쉐보레는 더 넥스트 스파크의 출시를 맞아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8월 8일부터 서울 코엑스, 부산 더 베이 101, 인천 스퀘어원을 비롯해 대구와 대전 등 각 지역에서 차량전시와 시승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한화케미칼 노조, 사측에 임금교섭 전권 위임

여수·울산공장 대승적 타협 노사 상생모델로 주목 받아

한화케미칼 노동조합이 사측에 임금교섭 전권을 위임하면서 노사 상생 모델의 귀감이 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노조(위원장 이항주)는 올해 임금교섭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사 측에 위임했다.

20일 울산공장에 이어 여수공장도 위임을 결정함으로써 한화케미칼은 올해 여수와 울산 등 모든 공장의 노조와 노사 간 대승적 차원의 타협을 이루게 됐다.

한화케미칼 여수노조는 전날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장에서 김평득 공장장과 이항주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금교섭 위임식을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위임장을 사측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대표단은 지난 3일 발생한 울산 공장 폭발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업장은 다르지만 한 가족인 만큼 조속한 사고 수습과 정상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 바라는 600여 명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임금교섭을 사측에 위임했다"고 전했다.

김 공장장은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노조에 감사하며, 한화 정신인 '신용과 의리'를 실천한 노조의 결정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29일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에서 열린 임금교섭 위임식에서 김평득 공장장(왼쪽)과 이항주 노조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한화정신은 한화그룹 임직원이라면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며, 이 중 '의리'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며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해온 한화정신이 이번엔 노조의 자발적 협조로 다시 한번 빛나게 됐다"고 답했다.

/이정필 기자




주영걸 부사장 한영석 부사장

현대重그룹 상반기 임원인사 25명 퇴임·37명 상무보 선임

현대중공업그룹이 올해 상반기 임원 인사를 30일 단행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25명이 퇴임하고 37명이 새롭게 상무보로 선임됐다.

상무보 신규선임자중 40대가 46%인 17명으로 전체적으로 임원의 세대교체가 진행됐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인사는 위기극복을 위한 조선 3사의 변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전 임직원이 더욱 노력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흑자를 실현하자는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현대중공업의 핵심 주력사업인 조선사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조선사업본부의 승진과 신규선임을 강화, 자신감을 갖고 우리나라의 조선업 정상 지위를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이번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전기전자,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등 사업 분야별로 사업대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고, 조직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조직 정비는 각 사업대표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인사, 구매, 원가, 기획, 안전 등 기존의 경영지원 기능을 각 사업부로 대폭 이양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

中 에어백쿠션 2공장 구축 신설공장 3분기부터 양산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 쥐룽시에 에어백 쿠션 2공장을 구축하고, 기존 난징공장에서는 사이드커튼 에어백 생산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신설되는 쥐룽공장의 제품과 난징공장의 사이드 커튼 에어백은 올해 3분기부터 본격 양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난징공장에서 연 1200만개의 에어백 쿠션을 생산한다. 중국 내 에어백 쿠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신설 쥐룽공장은 3분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 연 360만개의 에어백 쿠션을 생산하게 된다.

기존 난징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될 사이드 커튼 에어백은 북미, 유럽 등 선진국을 제외하면 아직 차량 장착률이 높지 않아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이정필 기자

"과학아 놀자"… 한화, 복지관 꿈나무와 과학나들이

'과학창조 한국대전' 견학

㈜한화는 연계 복지기관 이용 어린이들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5 과학창조 한국대전'을 견학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견학 행사는 어린이들이 전시회를 통해 과학의 역사를 배우고 미래의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화 직원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광복 70주년 과학기술 70선, 미래과학 30년 등의 전시관을 관람했다. 특히 1950년대 대표기술로 선정된 한화의 화약제조기술을 관람하며 한화 직원들이 어린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김광하 한화 대리는"어린이들은 화약을 불꽃놀이의



29일 ㈜한화 직원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70선 중 1950년대 대표기술로 선정된 한화의 화약제조기술을 어린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한화 제공

재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시회 관람을 통해 화약의 다양한 쓰임새와 국토개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어린이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는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 등 과학꿈나무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어린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체험의 장을 펼치고 있다.

/정용기 기자 yonggi@

두산그룹

전통시장 활성화 팔 걷어 상품권 30억원 어치 구매

두산그룹(회장 박용만)은 내수경기 활성화에 동참하는 뜻에서 30억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두산은 전통시장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선물로 주고 계열사별로 협력사 선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두산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에게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국내 여름휴가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해 임직원에게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거래처와 해외 계열사 등과 여는 행사를 가급적 국내에서 개최할 방침이다.

/이정필 기자

중국산동성 제남보세구 면세 쇼핑몰
잔여입점업체 모집

제남보세구

면세 쇼핑몰 9월 초 오픈 예정!



※ 본이미지는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사물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남보세구 면세쇼핑몰에서 드리는 4가지 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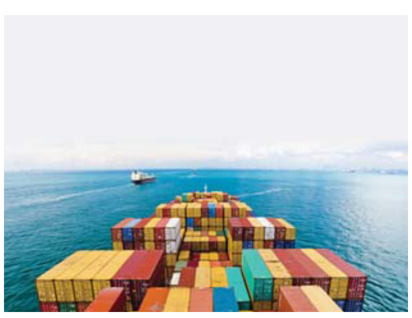
1. 투자 및 수익성

- 저렴한 임대료
  ▶ 고정비 절감
- 한국관 관리업체 통합판매관리
  ▶ 직접 및 간접 경비 절감
- 통역 지원/ 관리지원으로 언어 문제 해결
  ▶ 간접비 절감



2. 경쟁력

- 인터넷 판매 :
  제작 및 운영비 전액 시정부 지원
- 소매(도매가능) 판매 :
  중국내 최저 수입가로 단가 경쟁력 확보
- 광고비 :
  RMB1,500만/년 정부지원



3. 통관

- 제남세관 투자사업으로 통관절차
  간소화로 통관시간 단축
- 사전 통관절차 없이 창고
  先출고 後신고 지원



4. 운송 및 재고

- 전문 포딩업체 (NEO GLS) 통합물류관리
  ▶ 운송비 최소화
- 전용기 활용 운송
  ▶ 운송시간 단축 ▶ 재고 최소화
- 보세창고 무료 이용으로 고정비 절감

NAVER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제남보세구 면세점을 검색해주세요!

제남보세구 면세점 ▼ 검색

주소
济南市经十东路综合保税区港源二路755号

제남 국제공항 ▶ 제남 보세구 쇼핑몰

자가용 기준	거리	택시비
소요시간 19분	18km	51원 (약 9,000원)

문의전화 중국 : +86-531-8880-3865
한국 : 1566 -1298

사업설명회 신청방법

사업설명회(현장실사) 참가 신청서는 엠포털 홈페이지 mportal.org 에서
다운로드 후 팩스 02-6280-4470 또는 이메일 chn@mportal.org로 신청 바랍니다.

엠포털 홈페이지
www.mportal.org

주관기관 : 제남시정부, 제남세관, 제남일보 주관업체 山东晨世进出口贸易有限公司

마케팅비 줄였지만… SKT, 2분기 영업익 24.4%↓

4129억원 기록… 매출감소·특별퇴직 비용 부담
가입자당 평균매출 3만6601원 전년比 1.6% 증가

SK텔레콤의 2분기(4~6월) 영업이익이 마케팅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와 일회성 특별퇴직 비용 부담으로 줄어들었다.

SK텔레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분기에 412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2분기 영업이익은 올해 1분기보다는 2.5% 증가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마케팅비용과 자회사 상품매출원가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매출은 4조25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397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0% 감소했다.

SK텔레콤은 매출 감소 요인으로 상호접속요율 인하에 따른 망접속수입 감소와 가입비 폐지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감소했지만 자회사의 매출 증가로 전분기 대비로는 0.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감소 영향과 지난 1분기 SK하이닉스 배당 시행으로 지분법 이익 감소 영향을 받았다고 사측은 밝혔다.



LTE서비스 확산에 따라 SK텔레콤 LTE 가입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179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2.6%를 넘어섰다. 또한 실제 LTE 고객의 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3월 평균 3.0GB에서 6월 평균 3.3 GB로 증가하는 등 무선인터넷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은 LTE 가입자 수 증가와 맞물려 2분기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3만 6601원으로 작년 동기보다는 1.6%, 전분기보다 0.8% 각각 증가했다. LTE 가입자 수와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동시에 늘며 ARPU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3대 차세대 플랫폼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생활가치 플랫폼' 개발, '통합 미디어 플랫폼' 진화, '사물인터넷(IoT)서비스 플랫폼' 육성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용환 SK텔레콤 재무관리실장은 "SK텔레콤은 통신을 기반으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심층적인 니즈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플랫폼 사업자로서 변혁을 통해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을 본격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SK C&C, 베트남에 첨단 교통시스템 수출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ITS' 수주

SK C&C가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젠, 몽골에 이어 동남아시아 베트남에도 한국형 첨단 교통 시스템 수출에 나섰다.

SK C&C는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사업을 수주해 동남아 ITS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제1의 항구도시 하이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은 베트남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호찌민, 하노이, 다낭 3개 대도시권역의 고속도로를 준공하고, ITS 인프라와 교통통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도로 체계 현대화를 위해 추진됐다.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는 총 연장 105.5km로 내년 3월 개통 예정이다.

SK C&C는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상황실(CMO) 내에 자체 솔루션인 '넥스코어 기반의 ITS 플랫폼'을 적용해 통행료징수시스템, 차량검지기, 도로전광표지판, 폐쇄회로TV 등을 통합, 실시간 교통량 흐름과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각종 교통정보 가공과 분석을 비롯,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의 돌발 상황, 교통흐름에 대한 센터 중심의 실시간 원스탑 관리 체제를 구현한다.

내년 3월 ITS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교통 정체 구간과 구간 소요 시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교통사고 감소, 사고 처리 시간 및 통행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SK C&C 측은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LGU+, 2분기 영업익 1924억… 전년비 96.3↑

설비투자 감소 영향



LG유플러스는 회계 방식 변경과 설비투자비 감소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급증했다.

30일 LG유플러스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2분기에 19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작년 2분기보다 96.3% 증가한 것이다.

매출은 2조66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115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5.3% 늘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분기부터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비용(판매수수료)으로 처리했지만 4분기부터 보조금 만큼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식(단말기 매출 할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2분기 마케팅 비용은 4757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5.6% 줄었으며, 설비투자(CAPEX)는 광대역 LTE-A 전국망 구축 완료와 네트워크 투자 절감 활동 등으로 3203억원 집행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1% 감소했다.

무선 수익은 LTE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익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성장한 1조3300억원을 기록했다. 무선 서비스 수익은 질적 가입자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무선사업 부문의 성장 요인이 비디오 LTE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늘어난 것과 인당 LTE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LTE 서비스 가입자는 직전 분기 대비 3.5% 증가한 약 910만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무선 가입자의 78.6%이다. 유선 수익은 IPTV 가입자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8166억원의 성과를 올렸다.

/정문경 기자

삼성SDS, 2분기 영업익 1637억원

물동량 감소로 전년比 5.26↓

삼성SDS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에 163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5.3% 감소했고 전분기보다 25.5% 증가했다.

2분기 매출은 작년 2분기보다 4.9% 줄어든 1조9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보다 2.3% 늘어난 수치다.

2분기 당기 순이익은 12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7%증가했고 1분기 대비 34.8% 늘어났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력 사업인 IT(정보기술) 서비스는 1조350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관계사 IT 아웃소싱과 IT센터 계약 체결 등으로 전분기 대비 6.2% 증가했지만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공공·대외금융 시장의 영향과 이동통신망 구축 매출 감소로 5.6% 줄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사업인 물류 업무처리아웃소싱(BPO) 부문의 2분기 매출은 6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반적인 물동량 감소로 인해 전분기 대비 5.4% 감소한 수치다. 월드컵 특수로 물동량이 많았던 지난해 2분기와 견줘서도 3.2% 줄었다. /정문경 기자

LG유플러스, 폴더 스마트폰 'LG 젠틀' 단독 출시

삼성 '갤럭시 폴더'와 맞불

LG유플러스는 20만원대의 LG전자 폴더형 스마트폰 LG 젠틀을 30일부터 단독으로 출시한다.

이와 함께 20만원대 출고가의 삼성전자 폴더형 스마트폰 갤럭시폴더와 터치형 스마트폰 J5 등 2종도 출시했다.

LG유플러스 전용 스마트폰인 LG 젠틀의 경우 뉴 음성무한 비디오 80 요금제를 가입할 경우 사실상 단말 부담금액이 없다. 또한 뉴 음성무한 50.9요금제로 가입시 공시지원금 19만원에 추가 지원금(15%) 2만8500원을 더하면 2만원대로 단말 구입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LG 젠틀 공시지원금

(단위: 원)

LG Gentle LG-F580L (7월 30일 기준)	출고가	New 음성무한 29.9	New 음성무한 Video38	New 음성무한 50.9	New 음성무한 Video80
	242,000	130,000	147,000	190,000	242,000

/LG유플러스 제공

LG 젠틀은 지난 1월 출시된 아이스크림 스마트폰에 이어 LG유플러스에서 단독으로 선보이는 폴더형 스마트폰으로 가로 3줄, 세로 3줄의 시원한 화면 인터페이스와 휴대폰을 쉽고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간편 설정 등 LG 스마트 폴더폰만의 직관적인 사용자경험(UX)을 이어받은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의 경우 경쟁사 대비 2만원대 요금제에서는 최대 1만원, 고객이 많이 가입하는 5만원대에서는 1만 8000원, 10만원대 고가 요금제에서는 1만 2000원 더 저렴하다.

J5의 경우 2만원대 요금제에서는 최대 1만원이 경쟁사 대비 더 저렴하고, 10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는 출고가와 동일한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문경 기자

동주·동빈 친모 광윤사·L투자 지분 '변수'

시게미쓰 하츠코씨 입국
'형제 난' 모종 역할 주목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두 번째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88·**사진**)씨가 30일 오후 2시 30분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하츠코 여사는 현재 경영권을 두고 경쟁하는 신동주(61)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의 친어머니다.

하츠코씨가 입국하며 신씨 일가의 가족회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家)의 경영권 전쟁이 '신동빈 vs 신 씨 일가'의 전선으로 형성된 분위기에서 곧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회의가 열릴 수 있다.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무대로 펼쳐질 두 형제의 승부는 하츠코씨의 입국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업계는 하츠코씨가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 지분 관계가 불명확한 롯데홀딩스의 지배자 '광윤사'와 국내 롯데를 지배하는 'L투자회사'에 하츠코씨가 관여돼 있다면 신동빈 회장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광윤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하츠코씨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츠코씨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주주총회의 무게는 신동주에게 더욱 쏠리게 된다.

또한 하츠코씨가 국내 롯데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L투자회사'의 지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9일 일본경제신문을 통해 자신의 홀딩스 의결권 2%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의결권 33%, 직원 지주회의 32% 이상을 합하면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이며 주주총회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이사회와 주주들을 통해 이미 70%에 육박한 의결권을 확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모든 가족들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동빈 회장은 30일 오후 현재까지도 일본에 머물며 이사회와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다.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을 등에 업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29일 저녁 입국 당시 롯데배지까지 달았다.

사실상 모든 이사직에서 해임되고 개인지주일 뿐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배지를 달고 나온 것은 주주총회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인천국제공항에 'CJ에어타운' 오픈

CJ푸드빌 브랜드 총 집합
9월까지 총 25개 매장 운영



/CJ푸드빌 제공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은 인천국제공항에 CJ 브랜드를 총칭하는 'CJ 에어타운'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CJ푸드빌은 인천국제공항 1, 3층 식음 시설의 25개 운영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CJ푸드빌의 직영 매장은 12개로 현재 6개 매장의 문을 열었고, 9월 그랜드 오픈에 모든 매장의 문을 열 계획이다.

특히 CJ푸드빌은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하는 비비고, 빕스, 뚜레쥬르, 투썸커피 및 투썸플레이스, 계절밥상 등 외식 브랜드를 기존 형태 그대로 들여오지 않고 공항 특성에 맞게 신모델로 변형했다.

이를테면 비비고 계절밥상은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한국의 일상식을 전하는 한식 복합 공간으로 기획했다.

빕스의 공항 버전인 '빕스 익스프레스(EXPRESS)'는 총 40석 규모의 비비큐&샐러드 전문 브랜드다.

기존 스테이크 하우스 형식의 매장과 차별화된 QSR(퀵 서비스 레스토랑) 형태다.

'뚜레쥬르 카페'는 베이커리 카페 콘셉트로 커피와 즐기기 좋은 간식형 베이커리와 간편식을 제공한다. 선물존, 베이커리존, 커피존 등 매장을 이색적으로 구성했다.

이 외에도 3층 출국장에는 키오스크(작은 매점) 형태로 빠른 메뉴 주문이 가능한 '투썸커피'를 운영하고 있다. 투썸커피는 투썸플레이스의 글로벌 진출 브랜드명이다.

엠넷(Mnet), CGV와도 결합한 독특하고 새로운 모습의 외식문화도 선보인다. '투썸플레이스 엠넷(Mnet)', '투썸플레이스 CGV'가 대표적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국내 토종 외식 브랜드를 적극 배치해 해외 관광객이 한국의 맛과 멋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클렌징 전문 브랜드 '마케리마케' 출시

LG생건, 피부 컨설팅 설계도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클렌징 전문 브랜드 '마케리마케(MAKEREMAKE)'를 30일 출시했다.

'마케리마케'는 2030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하며, 밀싹 주스™·렌틸콩·호밀·아마란스·귀리·블랙퀴노아 등 저자극 자연 유래 성분이 담겨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표 제품인 '마케리마케 클라우드 올인원 클렌저'는 이중세안이 필요 없는 깨끗한 세정력의 저자극 올인원 클렌저다. '마케리마케 클렌징 피니셔'는 클렌징 마무리를 위한 제품이다.

또 '클렌징 큐레이터' 서비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화이의 클렌징 노하우를 바탕으로, 온라인 상에서 개별적인 클렌징 피부 컨설팅을 설계해준다.

/김수정기자 ksj0215@

동서식품 '제티 초콕' 3종, 자발적 리콜

동서식품(대표 이창환)이 어린이 간식 '제티 초콕' 3종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제티 초콕을 마시던 중 빨대 내부에 있던 필터가 빠져 삼킬 우려가 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티 초콕은 빨대 속에 초콜릿·딸기·쿠키와 초코 분말 등을 넣어 우유에 꽂아서 마실 수 있도록 만든 가공식품이다.

조사 결과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빨대 끝 부분을 씹거나 치아를 이용해 밀어낼 경우 빨대가 손상돼 플라스틱 필터가 외부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미 기자

카페베네, 몽골에 열번째 매장 '산사르점' 개점

연내 매장 20개 운영 목표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대표 김선권)는 몽골 울란바토르 바얀골 거리에 '카페베네 몽골 10호점 산사르점'을 개점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사르점은 몽골 내 7번째 가맹점이다. 수도 울란바토르 서남단의 바얀골 거리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산사르 센터(Sansar Center) 1층에 입점했다. 매장은 24평 규모로 40석의 좌석이 마련돼 있다.

카페베네는 지난 3월 첫번째 가맹점을 오픈한 이후 현재까지 14호점 계약을 완료하고 개점을 확정했다. 올해 직영 및 가맹 매장을 포함 20개점을 운영해 몽골 내에서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카페베네는 다양한 메뉴와 고급스러운 매장 분위기로 몽골 내 커피 한류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기프트카드 사면 게임 아이템이" 홈플러스(대표 도성환)는 내달 10일까지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구매 시 5% 할인·게임 아이템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기프트 카드 5개 권종 모두 해당된다. 홈플러스 125개 매장과 익스프레스 직영 매장에서 실시된다.

/홈플러스 제공

식품업계, 문어발식 확장… 약인가 독인가

오리온·하림·삼립식품 등 다각화 명목 신사업 추진

적자 운영·사업 철수 등 성공하는 사례는 드물어



사진 왼쪽부터 오리온 강원기 대표, 웅진식품 최승우 대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삼립식품 윤석춘 대표.



사진 왼쪽부터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매일유업 김정완 회장, 롯데칠성음료 이재혁 대표, 삼양사 문성환 대표.

식품업계가 각종 신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갈수록 정체되는 시장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의 한 방편이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였다가 결과적으로 적자만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제과업체 오리온(대표 강원기)은 유통업체 홈플러스 인수를 추진 중이다. 경기불황에다 전체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스포츠토토 사업이 지난달 종료되면서 사업다각화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예비 입찰 후보 명단에는 오르지는 못했지만 해외 사모펀드(PEF)와 파트너를 구성해 본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홈플러스 예비 입찰에 탈락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홈플러스 인수에 관심이 있다"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인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웅진식품(대표 최승우)은 최근 브랜드 '스위토리'를 론칭하고 제과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그동안 웅진식품은 음료와 건강식품 생산·판매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번 신규 브랜드로 론칭으로 2018년까지 종합식품회사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닭가공 업체인 하림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은 지난달 해상운송업체 팬오션을 인수했다. 기존 사업영역과 전혀 다른 팬오션 인수를 통해 하림은 세계 최대 곡물 메이저업체인 카길처럼 글로벌 곡물유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SPC그룹의 자회사인 삼립식품(대표 윤석춘)도 제빵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식품소재, 식품유통 등으로 사업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삼립식품의 식자재 유통사업부분을 분할해 삼립GFS를 출범했다. 식자재 제조와 유통까지 하는 종합식품회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식품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식품업체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벌였다가 적자에 시달리거나 결국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면 원조 기업인 삼양식품(회장 전인장)이 대표적이다. 삼양식품은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2010년 면 프랜차이즈 호면당에 이어 지난해 크라제버거를 인수하는 등 외식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인수 직후 2011년 62억원과 이듬해 80억원을 기록했던 호면당은 지난해 매출 77억원, 영업손실 15억원을 기록하며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여기에 사업 확대로 본업이던 라면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삼양식품은 올 1분기 라면 매출 59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94% 감소했다. 시장점유율에서도 경쟁사들에 밀려 하락 추세다.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의 신사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매일유업이 2001년 설립한 와인 수입업체 레뱅드매일은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07년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외식 사업들도 커피전문점 폴바셋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지난해 '만텐보시'·'정'·'달' 등의 브랜드를 대거 정리했다.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도 2007년 선보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카페 칸타타'를 최근 철수하기로 확정했다. 사업 초기 공격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기도 했지만 치열한 경쟁에 밀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결국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

삼양사(대표 김정·문성환)도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사업 확대를 위해 뷰티와 다이어트 개념의 브랜드 비디랩과 카페형 베이커리 믹스앤베이크 등을 선보였다. 하지만 수익 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못해 지난해 사업을 철수했다.

업계 전문가는 "식품업계가 최근 몇 년간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본업 외에 다른 사업에 발을 들였지만 좋은 성과를 얻는 업체가 드문 상황"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롯데제과 "껌종이에 마음 전하세요"

'좋은껌 함께해요' 캠페인



롯데제과(대표 김용수)가 쥬시후레쉬·후라보노·자일리톨·커피·이브 등 8종의 껌 제품 내 포장지에 '힘내자'·'좋은하루'·'파이팅' 등 메시지를 인쇄하고 '좋은껌 함께해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껌만 씹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에 좋은 글을 담아, 껌을 주고받을 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껌 종이에는 '힘내자'·'파이팅' 외에 '함께하자'·'미안해'·'긴장풀어'·'잘될거야'·'말하는대로'·'기운내'·'대박나세요'·'든든해요 등 20여개의 응원 메시지가 있다.

/정은미 기자

"혼수 가구제품, 한번에 준비하세요"

한샘 '원스탑 쇼핑 이벤트'



한샘(대표 최양하)은 내달 말까지 혼수 용품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원스탑 쇼핑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동시에 구매할 경우 침대 프레임 전 품목 50%할인, 매트리스 최대 50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또 붙박이장·드레스룸 등 장류를 함께 구매할 경우 '3인용 소파 증정'·'소파 8종 할인'·'3단 서랍장 증정' 중 한 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행사는 전국 한샘 플러그샵, 한샘인테리어 대형대리점 및 일반대리점에서 진행된다. 온라인에서 한샘 웨딩클럽에 가입할 경우 한샘 생활용품 1만원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성현 기자

수면장애 시달리는 현대인… 잠 산업 '쑥쑥'

기능성침구 시장 연 6% 성장



최근 수면 시장이 크고 있다. 생활 속 나쁜 자세로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면서 숙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1년 4800억원에 불과했던 기능성 침구 시장은 지난해 6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연 6%씩 크고 있다. 기능성 침구를 포함한 전체 수면시장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브자리는 기능성 침구 브랜드 슬립앤슬립 전 매장에 '슬립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있다. 기능과 건강이 중요한 구매 요소가 되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에 맞춰 침구를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슬립코디네이터들은 단계별 전문컨설팅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이브자리는 전국 49개 슬립앤슬립 매장에 각 1명씩 슬립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체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작성한 설문지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슬립코디네이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상품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매 전 무료로 제품을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슬립앤슬립 매장에는 침구류 145종 외에도 아로마 향초·수면 안대 등 수면 소품 130종도 취급하고 있다. 이브자리는 슬립코디네이터 기용 등 전문 서비스를 강화한 슬립앤슬립 매장을 연내 100호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과거 침구라고 하면 이불이나 침대 매트리스 등을 떠올렸다면 최근에는 액세서리였던 베개도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기능성 침구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에서는 가격을 할인해 준다 하더라도 베개 하나에 20만원이 넘는 정가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개 커버까지 추가할 경우 가격은 더 비싸진다.

실제 이브자리의 일반 베개(속통)인 스카이바이오(L)가 3만5000원인데 비해 기능성 침구인 측면용 의사추천베개는 7만5000원으로 4만원 차이가 났다. 의사추천베개는 용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가장 비싼 제품은 23만원(엑셀 크림 필로우)이다. 가누다의 대표 상품인 견인베개 블루라벨은 26만4000원으로 여기에 3만 8000원인 커버를 추가하면 약 3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자생추나베개의 '자생추나베개에어셀' 가격도 이와 비슷한 25만8000원이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 향후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고도담 수면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능성 제품의 인기는 스트레스와 과로에 지친 현대인들이 숙면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욕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생활 수준이 높고 도시 생활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수면 환경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에 대한 구매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

고지혈증·간손상엔 '헛개열매'

광동제약·경희대 연구팀 추출물로 1년간 동물실험 간질환 예방·억제효과 규명



헛개열매 추출물 효능 연구를 주도한 경희대 한의대 김성훈 교수와 연구팀.

헛개열매 추출물이 고지혈증과 간손상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광동제약과 경희대 한의대 연구팀에 의해 밝혀졌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성훈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헛개열매 물(水)추출물의 고지혈증 및 알코올 유도성 간손상 억제 효과' 연구를 통해 이 같은 효과를 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경희대 한의대 김성훈 교수팀은 2014년 8월부터 약 1년간 일반 음료 형태와 흡사한 헛개열매 물(水)추출물을 이용해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동물실험에서 2주간 헛개열매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실험용 쥐에게 고지혈증을 유발시킨 후 혈액을 채취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유발 직후 증가했던 혈액 내 총 콜레스테롤, 인슐린 등의 수치가 24시간 후 유의하게 감소, 고지혈증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헛개열매 추출물이 혈액 내 지방구(미세한 지방입자)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 관련 단백질 발현량을 증가시키며, 세포 내 지방 포함 지질의 침착을 감소시켜 고지혈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 식이를 통해 간손상을 일으킨 실험용 쥐에게 6주간 헛개열매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후 혈청과 간조직을 분석한 결과 간기능 수치인 ALT, 총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에 가깝게 감소됐다.

알코올 분해효소인 ADH, ALDH의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돼 간손상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경희대 한의대 김성훈 교수는 "헛개열매는 지구자라는 한약명으로 숙취해소 등의 효능이 있어 오랫동안 간질환에 활용되어 왔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헛개열매 추출물이 고지혈증 예방·억제 효과와 알코올성 간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실험 결과의 의의를 밝혔다.

광동제약 식품연구부 우문제 이사는 "헛개열매의 고지혈증 및 간손상 억제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식품 원료로서 기능과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헛개열매에 대한 실험연구를 지속, 다양한 효능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관련 전문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약국전용 유산균… 장 기능 강화 효과

동국제약
프로비마게 플러스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은 프로비마게를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비마게 플러스(PROBI MAGE+·사진)'를 약국 전용 제품으로 출시했다.

'프로비마게'는 스웨덴 프로비(Probi)사가 'LP299V'*라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개발해 제품화 한 것으로 발매 1년 만에 프로바이오틱스 북유럽 최대시장인 스웨덴 내에서 판매 1위(시장점유율 약 40%)를 기록했다.

동국제약은 프로비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2014년 직수입·판매를 시작해 2주만에 1차 판매물량을 완판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좋은반응을 얻었다.

이번에 출시된 '프로비마게플러스'는 기존 제품에 함유된 특허 균주 LP299V* 100억마리 외에도, 장 기능을 강화해 주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Lactobacillus rhamnosus) R-11ND 균주 10억마리가 추가됐다.

'프로비마게 플러스'는 1병당 30캡슐(1개월분)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문의: 고객상담실(080-550-7575)

/최치선 기자



이화 해외의료봉사단이 지난 29일 2015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발대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우즈벡 의료봉사 떠난다

8월 2일부터 7박 8일 일정

이화 해외의료봉사단이 지난 29일 의학관 A동에서 2015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개최된 발대식에는 김경효 이화여대 의전원장 겸 의과대학장과 김영주 교육연구부장을 비롯해 오혜숙 이화의대 동창회장, 김미순 이화여대 총동창회 선교부장 등이 참석해 의료봉사의 참의미를 되새기며 봉사 단원들을 격려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는 봉사단은 8월 2일부터 9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안디잔 지역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 특강 등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이화의 설립 정신인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단에는 신상진 정형외과 교수를 단장으로 박준범 순환기내과 교수와 김민혜 알레르기내과 교수를 비롯해 전임의, 간호사, 치위생사, 이화여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자원봉사자 등 총 26명이 참가한다. /최치선 기자

안전한 교정위해 송곳니 아닌 덧니는 '발치'

닥터 Q&A

Q. 덧니예요. 치아교정할 때 덧니를 빼나요?



송정우 원장
(센트럴치과 서울시청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대한치과교정학회 정회원
대한소아치과학회 정회원
대한심미치과학회 정회원
RWISO(Roth Willams International Society of Orthodontists) 정회원
– Roth Williams course 수료 / RWKSO 정회원

A. 치아교정치료를 고려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덧니'로 표현되는 불규칙한 치열과 앞니가 돌출돼 생기는 '돌출입'입니다.

이러한 부정교합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치아들이 배열되는데 필요한 공간보다 잇몸뼈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덧니의 경우는 치아의 원래 위치보다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치아교정치료 과정에서 치아의 수를 줄여주는 '발치'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모든 치아들이 치열에 대해 필수적이라면 발치를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치열에는 상대적으로 제거되어도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 치아가 있습니다.

소구치라고 부르는 송곳니 뒤의 작은 어금니인데 이 치아는 2개씩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치하며 이로 인해 생긴 공간으로 치열을 교정하게 됩니다.

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치아들이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 발치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덧니가 심한 경우 가장 틀어지기 쉬운 치아는 송곳니입니다.

이때 송곳니가 높게 자리잡은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따라서 덧니로 된 송곳니를 발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덧니로 표현되는 불규칙한 치열.

하지만 송곳니는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이고 앞서 언급한 이유로 송곳니가 아닌 송곳니 뒤의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게 됩니다.

발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치아교정을 진행할 경우 잇몸뼈가 내려가거나 돌출입 등의 부작용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그렇듯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 정확한 환자상태 파악과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해야 부작용이나 재치료를 하는 등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교정치료를 위한 진단결과 발치를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게 되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최치선 기자

방통대 서울 남부센터, 목동서 새 둥지

내년 3월 이전 완료키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는 서울 남부권 학생들의 학습공간인 서울 남부학습센터를 서울 양천구 목동으로 내년 3월 이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남부학습센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총 연면적 1만3154㎡로 기존 남부학습센터(4738㎡)보다 3배 정도 큰 규모로 조성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개방형 학습공간과 편의공간을 대폭 확충했다.

층별 공간구성 계획을 살펴보면 지하층은 참고열람실과 서고, 1층은 행정실과 유아방, 생활협동조합 카페·로비 등 편의 공간, 2~5층은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6층은 자기주도 학습공간인 개방형 학습실과 그룹 학습실로 구성돼 있다. 층별로 휴게공간이 있다.

특히 위치인식 카메라로 강의와 녹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첨단 자동화 녹화강의실과 전산실습, 영상강의 수강, 학술정보 검색 등이 가능한 러닝센터를 신설해 스마트한 강의·실습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대학 당국은 리모델링 설계용역(8~10월)을 통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간 공사를 해 내년 3월 중 이전과 입주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최치선 기자

비수술 관절 치료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

유명 연예인,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로 완치
일반 고주파 수술과 다른 진화된 획기적 치료법 개발
최첨단 장비로 10여분 시술… 하루만에 완치해 퇴원

인기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멤버인 개그맨 정준하씨가 급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최근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에서 특수 내시경을 이용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받았다.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에따르면 정준하씨는 당시 2주전 발생한 갑작스러운 요통으로 침을 맞고 견디다가 일주일간의 해외 촬영중에 갑자기 악화된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잠도 거의 못자고 견디다 귀국하자마자 병원을 찾았다. 정준하씨의 상태는 응급으로 촬영한 요추 MRI상 급성 제 5 요추 -제 1 천추간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으로 터진 추간판이 아래로 흘러내려 심하게 신경을 압박해 정상 보행하기 힘들 정도로 심했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 원장은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에서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을 완치시켰던 특수 내시경을 이용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로 국소 마취하에 15분 정도 시술을 해 튀어나온 디스크를 집어넣고 수축시켜 제자리로 밀어 넣었다. 터진 추간판은 신경치료로 동시에 치료해 다리 통증이 즉시 사라지면서 깨끗이 완치돼 당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조성태 원장은 "정준하씨의 시술은 통증없이 편하게 잘 치료 됐으며 걷기 힘들정도로 심한 증상이었으나, 고주파 치료후 통증이 사라져서 매우 만족한 상태로 귀가 했다. 시술 직후 방송에 출현 하는 등 향후 방송 활동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준하 씨 사례처럼 5년전부터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했던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 또는 고주파 수핵 감압술은 일반적인 고주파 열 치료와는 차원이 다른 진화된 치료법이다.

그 동안의 수많은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특수 신경 치료 기법을 같이 사용해 고주파 열 치료술은 치료가 힘든 말기 디스크 질환 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디스크 동반된 협착증까지 치료 영역을 넓혀 획기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은 스타들을 상업적 광고 홍보모델로 쓰지 않고 실제로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시술하고 연예인 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 선수들이 찾으면서 유명세를 얻은 병원이다.

원조 아이돌 여가수이면서 요즘 한창 방송 활동중인 원로 가수인 장미화씨 뿐만 아니라 가수 휘성, 런닝맨의 가수 김종국씨등 4명의 멤버들이 비슷한 증상인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고생하다가 고주파 디스크 시술을 받은 후 증상이 말끔히 해소 돼 현재 방송 활동을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



담당 주치의인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 조성태 원장(왼쪽)과 개그맨 정준하씨. 조 원장은 내원한 정준하씨를 특수 내시경을 이용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로 국소 마취하에 15분정도 시술을 해 당일 퇴원시켰다.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개그맨 정준하씨는 얼마전에 급성 경추 디스크로 모대학 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받은후 한동안 방송 활동을 못하였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간단하게 허리 디스크와 똑같이 수술 없이 고주파 치료 했으면 좋았을거라고 그때 당시를 많이 아쉬워 했다고 한다.

이처럼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은 5년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 또는 고주파 수핵 감압술로 유명세를 얻은 비수술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이다.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은 개원 5년만에 강남의 메카이며 중심인 선릉역 6번 출구에 최첨단 진단과 치료 의료장비·감염에 대한 예방을 위해 무균 수술실을 갖추는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최첨단 비수술 중심의 정형외과 병원을 얼마전 개원했다.

조성태 병원장은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의 유명한 비수술 척추 치료 방법에 다양한 비수술 관절 치료를 개발하고 접목시켜 수술 없이 관절과 척추 질환을 고치겠다는 신념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속의 초일류 병원으로 거듭 성장하고자 강남의 중심인 선릉역에 개원했다"고 밝혔다.

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의 고주파 디스크 치료는 일반적인 고주파 열 치료와는 차원이 다른 진화된 치료법을 개발했다. 또한 그 동안의 수많은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특수 신경 치료 기법을 같이 사용해 고주파 열 치료술로 치료하기 힘든 말기 디스크 질환 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디스크 동반된 협착증까지 치료 영역을 넓혀 획기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성태 원장은 "일반적으로 고주파 수핵 감압술은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거의 없으며 보통 증상이 심한 급성 중기 디스크나 말기 디스크에 적용이 되지만 실제로 많은 경험과 숙련된 전문 척추 외과 의사가 아니면 효과를 볼수가 없고 오히려 악화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강남초이스정형외과병원은 1년에 수천여명의 환자가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시행하고 해외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고 선진국 의사들이 고주파를 배우러 오는 국내에 선 독보적인 고주파 치료 전문 병원이다.

경험이 많은 숙련된 척추 치료 원장들이 15분이상 고주파 열 치료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치료한다. 따라서 고주파 치료 단독만으로도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다.

결국 대부분의 척추 전문 병원들이 비수술 척추 치료에 있어서 안전하고 재발이 거의 없는 고주파 디스크 치료에 경험도 부족하고 치료에 대한 자신이 없고 그래서 통증 치료 목적과 비용을 올리기 위해 끼워 넣기 식으로 꼬리뼈 레이저 또는 신경 성형술등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원장은 "이런 무리한 수술이 아픈 환자들의 마음에 더욱 더 상처를 주고 있다며, 양심적이고 정직한 의사를 잘 만나야 한다"고 전했다.

◇문의: 서울대점(02-875-2200), 강서점(02-2698-2200), 강남점(02-539-2250)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불가능한 미션, 그런 압박도 특권이죠

영화 '미션 임파서블5'

톰 크루즈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영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내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톰 크루즈(53)에게 불가능은 없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바로 그 증거다. 1996년 1편을 시작으로 톰 크루즈는 작품마다 고난이도의 액션을 스턴트 없이 직접 소화해왔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 고층 높이에서 펼쳐지는 액션 신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다.

스토리·캐릭터·관객 위해 과감한 액션 도전
액션·스릴러 녹아든 첩보 스릴러 되길 바라
다음에도 관객 놀라게 할 장면 준비하고 있어

30일 개봉한 시리즈 5번째 영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에서도 톰 크루즈의 '불가능한 도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 군수송기가 등장하는 오프닝이 그렇다. 톰 크루즈는 대형 군수송기에 매달린 채 이륙하는 아슬아슬한 장면을 직접 소화했다. 이 밖에도 수중에서 벌이는 위험한 미션, 속도감 넘치는 오토바이 추격전 등 CG를 최대한 배제한 아날로그 느낌의 액션 장면들이 영화 가득 펼쳐진다.

톰 크루즈가 액션 연기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유는 관객 뇌리에 남을 "멋있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내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톰 크루즈는 "스토리를 위해, 캐릭터를 위해, 그리고 영화를 보는 분들을 위해 아주 좋은 장면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톰 크루즈에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영화인으로서 처음 제작을 맡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는 "어릴 때 TV에서 해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무척 좋아했다. 영화 제작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 시리즈가 글로벌한 캐스팅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영화가 되길 바랐다. 첩보 스릴러지만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통해 액션과 서스펜스를 연결하려고 고민했다"고 시리즈의 특징을 소개했다.

작품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톰 크루즈다. 그 비결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톰 크루즈는 불가능한 미션에서 느끼는 '압박'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을 비결로 꼽았다.

"사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특히 영화 작업은 시작할 때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이번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도 개봉 일정을 5개월 일찍 앞당기면서 2주 전 토요일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것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이겠죠(웃음).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쁜 스케줄, 그리고 큰 압박감 때문에 일하기 힘든 환경이지만 그럴수록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압박 자체가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심정이기도 합니다."

톰 크루즈는 이번이 7번째 한국 방문이다. 그는 30일 저녁 레드카펫 참석에 이어 31일 국내 팬을 관객과의 대화 행사에서 만난다. 그는 "한국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올 때마다 늘 좋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6편의 촬영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대해 "아직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 작품을 마치면 사람들이 '다음에는 뭐 보여줄 거냐'고 매번 묻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과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에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장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star bag

아이스하키 에이스 변신



배우 **수애**가 영화 '국가대표2'(가제)에 캐스팅됐다. '국가대표2'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인 국가대표 창단 과정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이다. 수애는 극중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출신 에이스 지원 역을 맡는다.

팬이 준비한 특별한 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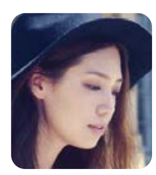
다음달 4일 29번째 생일을 맞는 배우 **장근석**을 위해 팬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다. 팬클럽 '크리제이'는 팬이 찍은 장근석의 사진을 모은 사진전 '2015 장근석 생일 기념 나눔 사진전'을 다음달 1일과 2일 이틀 동안 서울 청담동 갤러리 원에서 연다.

뚱보→모델 같은 남자로



배우 **박서준**이 MBC 새 수목극 '그녀는 예뻤다' 출연을 확정했다. 박서준은 어린 시절 작고 뚱뚱한 모습에서 벗어나 모델 못지않은 완벽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최연소 잡지사 부편집장 지성준 역을 맡았다. 오는 9월 방송될 예정이다.

버스킹으로 시민과 호흡



가수 **배수정**이 버스킹 공연을 펼친다. 30일 홍대에 이어 31일에는 청계천에서 시민과 만난다. 작곡가 그룹 아이코닉사운즈에서 역량을 쌓아온 배수정은 음악 방송이 아닌 버스킹으로 시민과 먼저 만나 음악으로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신곡 제목 공개



그룹 **빅뱅**이 다음달 5일 발표할 두 번째 신곡 제목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를 공개했다. 앞서 빅뱅은 8월 첫 번째 신곡이자 지디&탑 유닛의 5년 만의 노래인 '쩔어'를 공개했다.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는 '쩔어'와는 상반된 분위기의 곡이다.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엄정화의 팔색조 매력 담은 코미디

■ 미쓰 와이프

돈·성공의 화려한 삶보다 중요한 가족의 가치 담아

착한 감동 위한 억지 설정 수동적 삶의 긍정, 아쉬워





인생에 가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게임과 달리 리셋(reset)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든가 "인생을 새로 산다면…" 같은 질문을 던지며 다른 인생을 꿈꾼다.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지점에 서 있는지를 알기 위한 질문일 것이다.

영화 '미쓰 와이프'는 또 다른 인생을 통해 잊고 지낸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인 연우(엄정화)는 잘 나가는 싱글 변호사다. 어릴 적 원양어업을 하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어렵게 살아온 연우는 "남자는 여자에게 백해무익하다"는 신념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고자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다. 어머니까지도 세상을 떠나 이제 남은 가족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연우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 연우의 성공 비결은 단 하나, 바로 자본의 논리를 따르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연우의 화려한 삶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다. 사람의 운명을 관장하는 천계(天界)에서의 작은 실수로 벌어진 사고다.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연우는 한 가지 조건을 제안받는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한 달만 살면 다시 예전의 연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연우는 그 조건을 덥석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남편과 아이 둘이 딸린 아줌마의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영화 속 코미디는 변호사 연우와 아줌마 연우의 캐릭터가 빚어내는 충돌로 생겨난다. 돈과 성공을 쫓던 싱글 변호사, 그리고 18세에 시집을 와 드라마와 영화 속 장면을 흉내 내는 것이 취미인 '짠순이' 아줌마 사이의 괴리감을 영화는 웃음으로 승화시킨다.

특히 배우 엄정화의 매력이 빛난다. 엄정화는 그동안 성공한 커리어우먼부터 뜨거운 모성애까지 여배우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기를 보여줬다. '미쓰 와이프'는 그런 엄정화의 다채로운 모습이 한데 녹아 들어 있다. 영화 후반부에 드러나는 연우의 또 다른 비밀은 엄정화의 개인적인 삶과 맞물리면서 묘한 감동을 자아낸다.

'미쓰 와이프'는 착한 영화다. 연우를 통해 영화는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또한 연우의 변화를 통해 평범한 서민의 삶도 함께 응원한다. 다만 그 착한 감동을 위해 영화의 몇몇 설정들이 억지스럽게 짜인 점이 아쉽다.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나 수동적인 아줌마의 삶을 긍정하는 영화의 태도도 조금은 마뜩잖다. 15세 이상 관람가. 8월 13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음악으로 뭉친 가요제 참가자들

◆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 25분



2015 무한도전 가요제에 참여한 뮤지션들과 멤버들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긴급총회' 두 번째 이야기가 공개된다. 유재석은 박진영과 흥으로 한마음이 됐지만 음악적 견해로 대립한다. 황광희는 지드래곤과 태양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토라진다. 이 밖에 다른 팀들도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을 꺼내놓는다.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고 좀더 가까워진 멤버들과 뮤지션들은 곡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KBS2 'VJ특공대'

금요일 오후 8시 30분

한강의 출입금지 구역에서 행해지는 불법 어로를 단속하는 '한강경찰대'와 한강 전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 수난 구조대'의 활약을 밀착 취재한다.



◆ KBS2 '귀신은 뭐하나'

금요일 오후 10시 50분

2015 드라마 스페셜 첫 번째 작품. 천동에게 찌질하게 헤어졌던 원수 같은 첫사랑 무림이 8년 만에 유령이 되어 찾아온다. 천동은 무림을 물리치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 SBS '오 마이 베이비'

토요일 오후 5시

난생 처음 아쿠아리움을 방문한 라둥이의 모습이 그려진다. 슈와 임효성은 라희와 라율이가 물고기를 보면서 평소 밥과 함께 먹었던 생선 반찬을 떠올리자 당황하고 만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 (토)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2시 10 국악한마당 15시 15 광복70년 기획 KBS 다큐 1 16시 10 징비록 (48회) (재) 18시 10 동행 19시 10 6.25 전쟁 끝나지 않은 역사 20시 00 광복70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21시 40 징비록 (49회) 23시 45 콘서트 7080	11시 30 나를 돌아봐 (2회) (재) 12시 50 개그 콘서트 (재) 14시 25 슈퍼맨이 돌아왔다 18시 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시 55 파랑새의 집 (47회) 21시 15 연예가 중계 22시 2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4회) 23시 30 인간의 조건-도시농부	12시 10 무한도전 스페셜 15시 45 쇼! 음악중심 16시 55 우리 결혼했어요 18시 20 무한도전 (439회) 20시 45 여자를 울려 (31회) 22시 00 여왕의 꽃 (41회) 23시 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0시 40 MBC스포츠 2015 브리티시 여자 오픈 골프	14시 30 런닝맨 (재) 15시 50 아빠를 부탁해 (재) 17시 00 오!마이 베이비 18시 25 놀라운대회 스타!킹 20시 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시 00 너를 사랑한 시간 (11회) 23시 10 그것이 알고 싶다 24시 10 심야식당	12시 00 최고의 요리비결 (종합1~5) (재) <고준영의 진짜 맛있는 캠핑요리> 15시 50 청춘! 세계도전기 (재) 17시 50 장학퀴즈 (964회) 18시 40 한국기행 (종합 1~2) (재) 20시 15 다문화 고부 열전 (재) 21시 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종합 1~3) (재) 22시 35 장수의 비밀 100회 (재) 23시 05 세계의 명화 <심야의 탈주>	11시 30 비정상회담 (56회) (재) 13시 20 라스트 (3회) (재) 14시 35 유자식상팔자 (112회) (재) 15시 50 냉장고를 부탁해 (37회) (재) 17시 10 비정상회담 (56회) (재) 19시 40 JTBC 뉴스룸 20시 30 라스트 (4회) 21시 45 2015 동아시안컵 [여자]

2일 (일)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2시 10 전국노래자랑 13시 20 스카우트 2 (12회) 16시 10 징비록 (49회) (재) 17시 40 동물의 왕국 18시 00 황금의 펜타곤 시즌3 (2회) 21시 40 징비록 (50회) 22시 30 역사저널 그날 23시 20 취재파일 K	13시 1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4회) (재) 14시 20 파랑새의 집 (재) 16시 50 해피선데이 (552회) 19시 55 파랑새의 집 (48회) 21시 20 개그 콘서트 (807회) 22시 55 다큐멘터리 3일 23시 55 어송포유 (3회) 0시 55 이웃집 찰스 (재)	12시 10 출발! 비디오 여행 13시 15 화정 (31·32회) (재) 15시 45 섹션 TV 연예통신 16시 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20시 45 여자를 울려 (32회) 22시 00 여왕의 꽃 (42회) 23시 15 MBC스포츠 2015 브리티시 여자 오픈 골프 최종R	12시 10 너를 사랑한 시간 (11회) (재) 13시 15 가면 (재) 15시 40 SBS 인기가요 16시 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시 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시 00 너를 사랑한 시간 (12회) 23시 10 SBS 스페셜	12시 30 극한 직업 (재) 13시 20 명의 (재) 14시 15 일요시네마 <죠스> 16시 45 세계의 눈 17시 35 세계 테마 기행 (종합 1~4) (재) 20시 15 EBS 다큐 프라임 (종합 1~3) (재) 23시 00 한국영화특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3시 20 썰전 스페셜 (126회) 14시 40 비정상회담 (56회) (재) 16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스페셜 (54회) 17시 15 라스트 (4회) (재) 18시 30 김제동의 톡투유 (13회) (재) 19시 40 JTBC 뉴스룸 20시 40 닥터의 승부 (186회) 21시 45 2015 동아시안컵 [남자]

메이저리그서 나온 진기명기 트리플플레이

스포츠 주간 해프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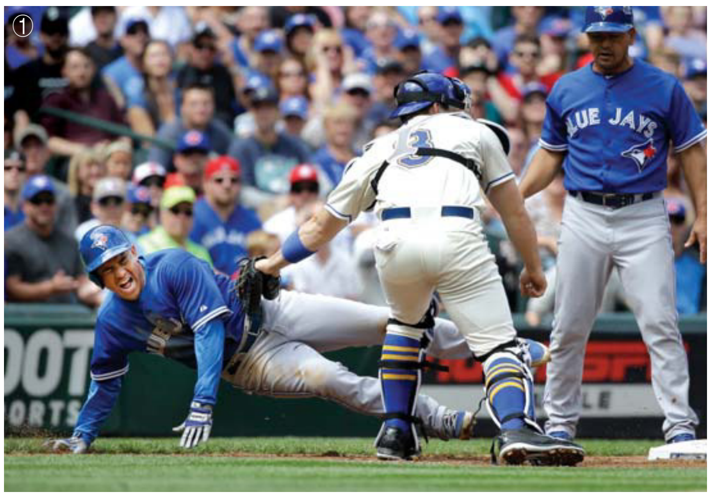
메이저리그에서 1루수-유격수-포수-포수(3-6-2-2)로 이어지는 진기한 트리플플레이(삼중살)가 나왔다. 3루 베이스를 주자 두 명이 동시에 밟고 선행주자가 넘어지면서 다소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시애틀 매리너스는 27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필드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홈 경기 4회초 수비 때 트리플플레이를 기록했다.

이날 토론토의 라이언 고인스는 4-3으로 앞선 4회초 1,3루에 타석에 나서 1루쪽 땅볼로 아웃됐다. 3루에 있던 에즈키엘 카레라는 홈 플레이트 쪽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3루쪽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런데 1루에 있던 필라도 2루를 돌아 3루로 향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3루에 도달했다. 한 베이스에 주자 2명이 서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포수 주니노는 카레라와 필라를 차례대로 태그했다. 짐 조이스 3루심은 필라에게 아웃을 선언했다. '인플레이 상황에서 주자 2명이 같은 루에 닿고 있을 때는 선행주자에게 베이스 점유 권리가 있다. 뒷 주자는 태그당하면 아웃 처리된다'는 규정에 따른 판정이다.

그런데 이때 카레라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베이스에서 발이 떨어지는 장면을 본 주니노는 카레라를 태그했다. 조이스 3루심은 다시 한 번 오른팔을 들어 아웃 판정을 했다. 기록원은 이 장면을 '트리플플레이'로 표기했다.

MLB닷컴은 "3-6-2로 표기하기엔 플레이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다. 3-6-2-2로 표기하면 조금 더 낫다"고 했다. 포수가 두 차례 태그로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잡은 걸 강조한 것이다. 3-6-2-2 트리플플레이는 1955년 8월 4일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60년 만에 나온 트리플플레이인 셈이다.







① 27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필드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경기에서 시애틀 매리너스 포수 마이크 주니노(가운데)가 에즈키엘 카레라를 태그아웃 시키고 있다. ② 23일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가 열린 서울 잠실구장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들어와 경찰특공대원 등이 수색을 하고 있다. ③ 빌리 헐리. /AP(연합)·연합뉴스·AFP(연합)

잠실구장에 폭발물이?

23일 프로야구 LG 트윈스-넥센 히어로즈전이 열린 서울 잠실구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군 당국이 긴급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기 시작 5분 전인 오후 6시 25분에 공중전화를 이용해 누군가가 "잠실야구장 중앙 타자석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말한 뒤 곧바로 전화를 끊은 것이다.

신고자 음성은 분석 결과 중학생 정도로 추정됐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송파서 소속 경찰과 형사 10여 명이 잠실구장에 도착해 1차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 잠실구장에는 이 신고자가 말한 '중앙 타자석'이 없어서 경찰은 일단 중앙 테이블석(탁자석) 위주로 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경기는 LG의 공격이 진행되던 1회말에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중단된 뒤 결국 오후 7시 13분에 노게임 처리됐다. 경기장을 찾았던 관중이 대부분이 빠져나가고 때마침 경찰 특공대가 잠실구장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수색이 진행됐다.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 폭발물 탐지견까지 가세해 그라운드 배터 박스를 비롯해 외야석까지 샅샅이 훑었지만, 다행히 폭발물로 의심할 만한 물건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사라진 아버지를 찾습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빌리 헐리 3세(미국)가 기자회견 도중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고백했다.

헐리는 퀴큰론스 내셔널 개막을 앞두고 29일(한국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게인즈빌의 로버트 트렌트 존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실종된 지 9일이 지났다"며 "아버지를 찾는데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헐리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지난 일요일 버지니아주 리스버그의 집에서 간편한 옷차림으로 얼마 안되는 현금을 들고 트럭을 타고 나간 뒤 소식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헐리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동안 아버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간절히 말했다.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강정호, 전날 이어 연타석 홈런포

3안타 폭발… 시즌타율 0.295로 3할 진입 앞둬
추신수도 3안타 기록… 텍사스, 3연패 탈출 勝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이틀 연속 홈런을 쏘아 올렸다.



강정호는 30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5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 솔로 홈런을 포함해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95(268타수 79안타)로 3할 진입을 앞뒀다.

강정호는 0-0이던 2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에르빈 산타나의 스트라이크 복판에 몰린 빠른 볼(시속 151㎞)을 잡아당겨 좌측 스탠드에 떨어지는 솔로 홈런을 날렸다. 전날 역전 결승포에 이은 연타석 홈런으로 시즌 7번째 홈런이다. 이 홈런으로 강정호의 타점은 33개로 늘었다.

4회 3루 땅볼, 5회 삼진으로 돌아선 강정호는 7회 1루수 강습 안타로 출루하고 9회 내야안타를 보탰다.

이달에만 타율 0.370(81타수 30안타), 홈런 3개, 8타점을 올린 강정호는 내셔널리그 '7월의 신인' 수상을 향해 막판 스퍼트에 들어갔다. 피츠버그는 10-4로 대승하고 3연승을 달렸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 역시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8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와의 첫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

시즌 타율은 0.231에서 0.237로 올랐다. 텍사스는 이날 5-2로 승리해 3연패 늪에서 탈출했다.

/김민준 기자 mjkim@

우즈 266위… 7개월 만에 234계단↓

부진의 늪에 빠진 타이거 우즈(미국·사진)의 주간 골프 세계랭킹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28일 발표된 주간 세계랭킹에서 우즈는 266위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연말 랭킹 32위에서 7개월만에 234계단이나 떨어졌다. 지금의 추세라면 프로 선수로서 생애 최저 랭킹을 기록할 수도 있다.

우즈는 1996년 8월 프로 전향을 선언했을 때 세계랭킹이 434위였다. 아마추어 세계랭킹1위였지만 프로 선수 자격으로는 한번도 대회를 뛰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우즈는 프로 전향을 선언하자마자 PGA 투어 그레이터 밀워키 오픈에 출전했다. 컷을 통과한 선수 가운데 꼴찌나 다름없는 공동60위에 머물렀지만 세계랭킹은 1계단 올라 433위가 됐다. 세번째 대회 쿼드시티클래식을 마치자 287위로 올랐다. 이후 우즈의 세계랭킹은 로켓처럼 수직 상승했다.

프로 선수로서 5개 대회를 치르자 세계랭킹은 221위로 올라섰고



라스베이거스인비테이셔널에서 프로 첫 우승을 차지하자 세계랭킹은 75위로 도약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358계단을 뛰어오른 것이다. 이듬해인 1997년 6월15일 우즈는 세계랭킹 1위 자리에 앉았다. 프로 선수가 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잠깐씩 자리를 내준 적은 있지만, 그때부터 우즈는 2014년5월17일까지 무려 683주 동안 주간 세계랭킹 1위를 차지했다. 1999년 8월 15일부터 2004년 9월4일까지 264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달린 뒤 2005년 6월12일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 281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다음달 4일 8월 첫째 주간 세계랭킹이 발표된다. 3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PGA 투어 퀴큰론스 내셔널 결과에 따라 우즈의 세계랭킹은 또 한번 미끄럼을 탈 수도 있다.

/하희철 기자

Shin Dong Bin, One Day Later Shin Gyuk Ho Chairman Deprivaiton Valid?

신동빈, 하루 뒤 신격호 대표박탈은 유효?

Is it invalid for Shin Gyuk Ho, Lotte group general president to fire Shin Dong Bin, Korean Lotte president and 6 Japanese Lotte holdings directors?

Japanese Lotte holdings general board has decided this matter without President Shin's consent. Besides, President Shin Gyuk Ho is 94 years old this year and is unable to make clear decisions while this was being executed. Therefore, President Shin held a general board meeting and declared invalidity.

But some say that the downsizing of President Shin Gyuk Ho may not be invalid. According to the amentment 390, for the decision to be valid, 50% of the general board must attend and 50% of them must favor in the matter.

Gwang Yoon Company currently holds the highest percentage of Lotte holdings, which is the share holding company of Japanese Lottle group. This group holds 27.65% of the share. It has not been reported officially, but President Shin held 50% of Gwang Yoon Company's share.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27일 도쿄 본사를 방문해 신동빈한국롯데회장과 일본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구두'로 해임한 것이 과연 무효일까.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 회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게다가 신 회장은 올해 94세로 거동과 언행이 불편한 신격호 총괄 회장의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무효를 선언했다.

하지만 신격호 회장의 이사회 해임안이 "무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법 제390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현재 일본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는 광윤사로 이 기업은 롯데홀딩스 지분 27.65%를 보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신 총괄회장은 그동안 광윤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4							
	9			1	4			5
	7			9	3	8		
		9		3		4		
5		3				2		6
		8		2		9		
		6	7	8			4	
1			3	6			2	
							8	

	2		4					6
	3		9			1		
1			6			8	2	
					1			8
	6	3		2		7	1	
2			7					
	1	8			6			9
		2			7		8	
6					3		4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8	4	1	6	7	5	3	9	2
3	9	2	8	1	4	7	6	5
6	7	5	2	9	3	8	1	4
7	2	9	1	3	6	4	5	8
5	1	3	9	4	8	2	7	6
4	6	8	5	2	7	9	3	1
9	5	6	7	8	2	1	4	3
1	8	4	3	6	9	5	2	7
2	3	7	4	5	1	6	8	9

7	2	5	4	1	8	9	3	6
8	3	6	9	7	2	1	5	4
1	9	4	6	3	5	8	2	7
4	5	7	3	6	1	2	9	8
9	6	3	8	2	4	7	1	5
2	8	1	7	5	9	4	6	3
5	1	8	2	4	6	3	7	9
3	4	2	5	9	7	6	8	1
6	7	9	1	8	3	5	4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업군인 회의… 사회생활 잘 할수 있을까요?
사회 나와도 순탄치 못해… 軍생활이 현명

푸른 말띠의 남자 72년 8월 31일 양력 14시

Q 지금 군대에서 사관으로 직업군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동이 잦아 주거 변동이 많고 저의 경우 예전과 달리 부하들을 간수하고 이끌어 가면서 군인의 길을 올곧게 하기가 힘이 듭니다.

요즘 군대 내에 폭행이라던가 젊은 사람들의 방만한 생활과 문명의 이기가 조직적이고 통제적인 생활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전투력 양성보다 자질구레한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만 제대를 하고 나와서 운수계통이나 기술을 배워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데 제가 나이가 있어서 제대 후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는지 염려가 되어 여쭙습니다.

A 진나라 말기의 여불위(呂不韋)가 빈객들에게 편찬시킨 여씨춘추(呂氏春秋)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때를 만나지 못하면 은둔하여 세상과 떨어져 숨어 살기도하며 또 힘들여 일하면서 때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벼슬 한번 하지 않은 위치에서 천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제후에서 천하를 얻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성인이 중히 여기는 것은 오직 시기이다.

씨를 뿌리면서 봄을 기다려야하듯이 비록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도 만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없다.

그렇다면 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주명리학이 이에 대한 답을 준비하기에 사주를 보는 것이며 사주는 부수적인 심리적인 교정이나 조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덕(口德)의 흠이 있으며 8월 말에 태어나 나무에 열매가 잘 익으려면 햇빛을 받아야 하지만 운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하여 사회에 나와도 뜻대로 되기가 힘이 듭니다.

주류무체(周流無滯:막힘이 없이 잘 흘러감)하지 못하는 생일지에 오화(午火)를 두고 있으니 수옥살(囚獄殺:옥에 갇힘)입니다. 수옥살은 천재지변으로 횡액을 당하거나 사소한 작은 일도 크게 벌려 관재구설수를 일으킬 수 있으며 빈번한 손재수와 사고를 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군·검·경찰계통이나 교도관 직종에 종사를 하면 감옥과 관련 있는 직업이 수옥살의 흉함을 면제부로 작용을 하게 되어 그것이 천직이 되면 오히려 뒤늦게라도 승진이나 운세가 원활해집니다.

제대 후 직업을 원만히 이뤄 갈 수 없으며 군대생활이 오히려 귀하에게 덕이 될 수 있으니 사람의 의지력은 하늘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므로 좌절하지 말고 군대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31일 (음 6월 16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비굴함은 패함보다 못합니다. **60년생** 파트너를 돌보아 주세요. **72년생** 부부간에 화합으로 같이 나들이를 나가면 좋습니다. **84년생** 약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길합니다.

소 **49년생** 세상을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61년생** 일운이 막히니 건강을 조심하세요. **73년생** 검소한 생활을 하세요. **85년생** 베푸세요.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호랑이 **50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얻습니다. **62년생** 이성간에 마찰은 대화와 선물이 보약입니다. **74년생** 불의의 사고를 조심하고 안전운행을 하세요. **86년생** 고집을 부리면 화가 됩니다.

토끼 **51년생** 길성이 몸에 비추니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입니다. **63년생** 고집쟁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75년생**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87년생**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용 **52년생**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64년생**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76년생** 밖에 일보다 집안에 무슨일이 있나 살펴보세요. **88년생** 현실적이면서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뱀 **53년생** 너무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65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77년생** 모험심이 생깁니다. 여행을 떠나세요. **89년생**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말 **54년생** 아직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66년생** 마음을 편히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세요. **78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90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세요.

양 **55년생** 신선한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67년생** 몸과 정신이 맑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79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91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만 주의하면 좋은 하루가 될것입니다.

원숭이 **56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68년생** 방해하는 자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80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92년생** 인내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닭 **57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길합니다. **69년생**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칩니다. **81년생**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93년생** 근면성이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개 **58년생** 뜻하는 바대로 밀고 나가세요. **70년생**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82년생**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94년생**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내는 이루게 될것입니다.

돼지 **59년생** 욕심을 버려야 할것입니다. **71년생**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할 때 입니다. **83년생**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95년생**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조심하고 재물을 감시하세요.

안심육아 시대, 우리 역할은?

<安心育兒>



기고
㈜베페 이근표 대표

지난 주 중국 상하이에서 세계 3대 유아박람회 중 하나인 '2015 중국 상하이 국제 유아용품 박람회'가 개최돼 다녀왔다.

박람회 현장을 살펴보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국의 바이어와 관람객의 눈길이 공통적으로 닿은 제품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육아 환경과 가장 밀접한 '안심(安心)육아용품'이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심하며 육아를 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최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접하는 뉴스를 보면 정말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이다. 영유아 대상 폭행사고가 빈번하고, 얼마 전까지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도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공포의 대상이다. 여기에 사시사철 갖가지 환경 오염에 먹거리 불안 역시 가시지 않는 걱정거리다.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바랐던 작은 소망은 이제 가장 큰 바람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이렇듯 아이 낳아 기르기가 점차 불안하고 어려워지자 육아를 둘러싼 저변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육아산업 전반에서 위생과 청결, 환경 관리에 초점을 맞춘 '안심육아용품'이 점차 세분화돼 출시되고 있다.

안심육아는 제품군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육아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방법도 달라졌다.

기존 엄마 위주의 육아 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육아를 주도하는 아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육아가 엄마, 아빠 공통의 몫임을 인식한데다, 각처에 도사리는 육아 불안 속에서 엄마 아빠를 떠나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내를 대신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남성들이 증가하는 수치에서도 볼 수 있다. 최근 '아빠의 달' 등 새로이 생겨나는 사회적 제도도 그런 현상의 확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안심육아 이슈의 확산 속에서 '제2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도 달라진 육아 방법과 육아 환경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가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아빠들을 현장에서 한번 더 응원할 예정이다. 베이비페어 현장도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곳만이 아닌 출산의 기쁨과 육아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다.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와 같은 주체의 변화만으로 육아에 대한 갖가지 불안요소가 해소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육아주체의 변화 양상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러한 트렌드와 발맞추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육아 정책 역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기존 엄마 중심으로 구축된 제도를 개선해 아빠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보육 기관 확충과 시설 관리 부분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 좀 더 안심되는 육아환경을 위해 한발 더 뛰어든 엄마 아빠들을 위해 기업과 정부는 더 적극적인 '육아 환경 개선' 작업을 펼쳐야 할 때다.

끊임없는 자동차 리콜… 누굴믿고 사야하나



기자 수첩
정 용 기
<산업부 기자>

자동차 시장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시정조치(리콜)가 소비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자동차의 제작 결함에 경중은 없다.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30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기아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쏘렌토 2597대가 미국에서 안전벨트 결함으로 리콜됐다. NHTSA은 2014년 10월23일~12월10일 생산된 2016년형 쏘렌토는 안전벨트 버클의 조립 문제 때문에 벨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2016년형 쏘렌토는 지난 3월에도 가속페달 결함 때문에 미국에서 1만2361대가 리콜됐다. 쏘렌토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3만8867대 판매됐다.

국내에서는 독일 수입차가 고공행진을 펼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30일 BMW 3·4시리즈 444대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12월12일 사이 제작된 BMW 3시리즈 225대에서는 조수석 안전벨트 내부 부품의 결함으로 바깥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안전벨트가 완전히 당겨지지 않아 착용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났다.

2013년 9월18일부터 지난해 3월6일 사이 만들어진 BMW 3시리즈 94대와 2013년 9월13일부터 지난해 3월3일까지 제작된 BWM 4시리즈 125대에서는 연료펌프 제작 불량으로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국내 수입차 시장 리콜 1위는 메르세데스-벤츠였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는 총 3만4756대가 리콜돼 국내 수입차 업체 중 가장 많았다. BMW는 1만238대가 리콜돼 벤츠의 뒤를 이었다.

수입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연이어 터지는 리콜 문제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각사들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 시 품질 개선에 대해서 엄격히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잦은 리콜은 품질이 안 좋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각사는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인사

■ 한국가스공사

◇전보 및 보임 △기획본부장 김점수 △영업본부장 박인환 △해외사업본부장 임종국 △생산본부장 고수석 △공급본부장 장진석 △기술본부장 양영명

■ 현대중공업

◇승진 <부사장>△한영석 △주영걸 <전무>△이윤식 △최정호 △배종천 △신현대 △하수 △김종욱 △강영석 △최규명 △이규식 △김종석 △윤중근 △조만규 △공기영 △김성락 △김대순 <상무>△김영헌 △박학준 △박정식 △여운학 △윤성일 △심화영 △안광헌 △김병주 △주원호 △송명준 ◇신규선임 <상무보>△김형관 △심왕보 △김영원 △강이성 △김명석 △민경태 △정병학 △서흥원 △전재황 △강정식 △김태진 △박진철 △이종원 △신학순 △전익태 △류창열 △이헌준 △김종길 △백선식 △최병한 △김영기 △양경신 △문원식 △허민수 △김판영 △이승원 △김동혁 △윤영철 △임영호 △이시국

■ 한양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경헌 △공과대학원장 겸 공과대학장 김용수 △공과대학 1학장 조용식 △공과대학 2학장 조성호 △공과대학 3학장 김영도 △공과대학 4학장 한석영 △생활과학대학장 남경숙 △학생처장 유규창 △산학협력단 2부단장 엄구호 △양성평등센터장 탁선미 △문화산업대학원장 겸 국제문화대학장 이상호 △과학기술대학장 강용한 △언론정보대학장 한상필 △창의융합교육원장 이재복 △국제부처장 최인영 △서울병원장 이광현 △구리병원장 김재민 △국제병원장 윤호주 △서울병원 부원장 김근호 △구리병원 부원장 박훤겸 △서울병원 기획관리실장 이오영 △구리병원 기획관리실장 한동수

社說

지금이 재벌가 싸움 벌일 때인가

무더운 한여름을 더 뜨겁게 하는 활극이 벌어지고 있다. 재계 순위 5위로 평가되는 롯데그룹에서 총수 2세 형제들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고령화에 따라 그룹경영권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가 재계와 국민의 관심사였다. 지금까지 현대그룹을 비롯해 여러 재벌들에서 형제들 사이에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져 왔다. 따라서 롯데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순조롭고 평화롭게 정리될 것인지 모두가 주목해 왔다. 아니 기대 아닌 기대를 해왔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여지 없이 무너졌다.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신격호 회장의 두 아들 동주와 동빈 형제가 현해탄을 넘나들며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정리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이들의 갈등은 과거 봉건시대 왕조세습을 둘러싼 형제간 다툼의 복사판이다. 어떻게 현대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아무리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금권사회라고 하지만 경영권 승계 방식이 너무나 전근대적이고 무질서하다.

지금은 재벌가가 재산싸움을 하기에 좋은 시기도 아니다. 국가경제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청년실업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책임있는 재벌이라면 청년실업 해소와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하다 못해 여러 가지 악재로 회복동력을 상실해 가는 증권시장을 살리기 위해 배당 확대라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평소 배당에 인색하던 롯데그룹 아닌가.

그런데 나라 경제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백주에 활극을 벌이다니 국민들의 시선은 몹시 싸늘하다. 그러니 롯데가 형제들은 이런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싸움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더 건설적인 방향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재벌가 형제들이 재산다툼을 벌일 만큼 국가경제가 여유롭지 않다. 싸움도 할 때가 있고 말아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저작물 관련 임금 미지급엔 어떤 조치?

생활법률

학원 강사로 일하는 A씨는 학원 방침에 따라 최근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참여했다. 오프라인 강의료와 별도로 임금이 책정되는데다 오프라인강의에 카메라만 한 대 추가되는 터라 부담도 없었다.

그러나 동영상 촬영 직후 학원 측은 시청률 하락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더니 급기야 지급을 거부했다. 학원 사이트에는 여전히 A씨의 강의 동영상이 올라 있다. A씨는 강의료 확보와 임금 지급 요청 중 무엇을 우선해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미지급금 확보가 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저작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방점을 두고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저작물에 대한 임금 지급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나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확보를 의미한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과 관련 없는 소유권, 지위 등에 대해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도 있지만 위 사례처럼 금전 문제만 해결되면 강의 영상 송출은 문제가 없으므로 가처분은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학원 측의 재산을 동결시켜야 한다.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 신청서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277조를 근거로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 이후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단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한 압박용일뿐 채무자가 이행에 옮기지 않는 한 강제성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미리 신청한 가압류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연미란 기자 actor@



순하디
순하다
순하리
처음
처럼
처음처럼 부드럽게
복숭아처럼 달콤하게
복숭아
우리들의 가벼운 | 순하리 처음처럼 복숭아
14도로 한번 더 순하게 더 깔끔하게, 순하리 처음처럼
알코올 냄새 NO NO, 최적화된 14도 블렌딩으로 찾아낸 RTS 타입의 칵테일
새로운 음주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RTS (Ready To Serve) : 특별한 제조 없이 바로 칵테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술
※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